朝鮮日報
太紙六面
發行人 申錫雨
編輯人 張志暎
印刷人 李肯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中國의 編遣會議

一

新年劈頭 建設期에 잇는 中國이 무엇보다도 먼저 着手하고 잇는 計劃이 잇스니 이는 南京에서 지난 五日부터 開催中에 잇는 編遣會議—裁兵會議—그것이니 中國革命의 二大目標인 『打倒帝國主義』 『打倒軍閥』이 旣往의 過程을 通하야 또는 今後의 完成을 바라고 무슨 한 勢力을 要하는바 이번의 編遣會議는 가장 時宜에 適한 것이다 辛亥革命을 지나 民國의 基礎를 確保하엿슴에 不拘하고 依然히 列强勢力을 抗拒치 못하고 外侮와 內患을 거듭하여 온 것은 무엇에 基因함인가? 이는 물을 것도 업시 革命勢力이 充分히 結成치 못한 過渡期에 잇서서 發生한 畸形的 封建軍閥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들은 果然 政府的 狀態에서 私兵을 擁率하고 地盤을 割據하야 안으로 모든 生産階級을 搾取하면서 밧그로 外來勢力과 야합이 가되어 그 自體를 길너온 것이엇다

二

이와 가티 軍閥의 反動으로 因하야 革命勢力은 廣東一隅에 潛伏하엿섯다마는 大戰以後 世界의 新機運에 刺戟되어 急速히 成長한 結果 從來의 軍閥을 打倒하야 北伐을 完成하고 國民政府의 統一的 基礎를 樹立한 것은 이미 昨年의 일이엇다 그러나 武力的 成功 다시 말하면 所謂 軍政期를 거우 버서나게 된 中國으로서는 비록 舊軍閥의 本體를 顚覆시키기는 하엿스나 그의 殘滓가 根絶되지 아니함은 勿論 舊軍閥에 代하야 새로운 形體의 實力派가 地方에 蟠據함을 免치 못하엿다 地方政治分會의 存在는 이러한 勢力의 地盤을 形成하고 잇슴이 아니냐! 그러고 編遣會議劈頭에 提出된 五大衛戍區域劃分案가튼 것도 那邊의 消息을 傳하는 것이라 하겟다 그러나 大勢에 잇서서 完全한 中央集權을 爲하야 軍權을 統一하고 裁兵을 實施하야 互大한 軍權所有者의 政治的 壟斷을 防止하라 함은 물을 것도 업는 일이다

三

그러면 各實力派의 이에 對한 態度는 엇더하냐? 蔣介石은 軍權의 集中統一에 努力하겟다는 主張은 變함이 업슬 것이오 馮玉祥은 中央政府의 軍政部長으로 全國軍權을 集中掌握하기 爲하야 蔣介石의 主張을 擁護할 것이다 다만 李宗仁은 兩湖를 地盤삼아 宛然히 南京政府에 對抗한 觀이 업지 못하나 가튼 地方에 또 리 깁흔 潛勢力을 가지고 잇는 白崇禧에 對한 關係上 大體로 中央의 理論에 좃는다 할지라도 어느 程度까지의 要求는 固執할 것이오 李濟琛은 李宗仁의 境遇보다도 더 만히 困難한 地方問題가 잇서 相當히 强硬한 態度로 나올 것이며 閻錫山은 中央과 武漢, 廣東兩實力派의 中間에 잇서서 意見調合을 斡旋할 것이라고 볼 수 잇다 그러고 白崇禧 商議이 이번 會議에 參加치 아니한 것은 多少 注目을 끄는 同時에 中央으로부터 選出되어 編遣會議의 委員이 된 財政部長 宋子文 交通部長 王伯群 鐵道部長 孫科 等이 地方의 財政, 交通, 鐵道 實權의 管理權을 實力派의 손으로부터 中央에 統一시키기 爲하야 이번 機會를 利用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關係로 編遣會議는 相當한 曲折이 업지 못할 것이다

四

여긔서 中央提案의 軍要한 것을 要約하야 볼진대 (一)各集團軍의 名稱取消와 總司令의 撤廢 (二)六十師團의 新國防軍編成 全國國防區域의 五大劃分과 張, 閻, 馮, 李(宗仁)李(濟琛)의 司令長官分擔 (三)中央政府의 軍權統一과 軍費裁兵費의 支給 (四)中央政府의 財政 交通 鐵道의 管理權統一과 經常費支給 (五)關係機關의 各軍裁撤後의 善後方策 工場設立 移民開墾等—決定 (六)徵兵制實行準備에 關한 明治維新當時의 廢藩置縣 改變方法의 參酌等을 들게 되며 한거름 나아가 空軍新設 海軍整頓 兵工廠設立等 軍備建設에 關한 計議가 잇서 國防의 根本策을 確立하라는 모양도 잇다 이번 編遣會議에 對하야 어느 程度까지의 成果를 어들던지 아즉 豫斷키 어려우나 第三次全國大會를 압두고 가장 時急한 解決을 要하는 것임은 勿論이어니와 各實力派들의 虛心坦懷한 態度로써 中國統一에 對한 眞摯한 努力이 잇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以後에야 外侮를 물리치고 內實을 期할 수 잇스며 自主國權恢復도 이로부터 成就의 功을 일울 것이다 中國의 軍閥淸算期는 이제 到來하엿다 革命完成期는 이로부터 비롯한다 中國編遣會議는 意味가 이 點에 잇슴을 想到할 때에 더욱 그 經過를 注視하는 바이다

漢口罷業委員長 反日宣言發表
學生團도 參加를 決議
租界周圍에 軍隊配置

(漢口十日發) 漢口市黨部工人部長 曾寶先氏는 罷業委員長의 名으로서 反日宣言을 發表하야 反日會는 日本人及日本租界에 對하야 直接行動을 取할 것이라 하고 其他過激한 各種宣傳文多數를 撒布하엿더라

(漢口十日發) 對日罷業의 前途를 念慮하며 不安中에서 第一夜는 밝엇다 今朝來 表面的 一般形勢는 緩和되엇스나 中國側은 昨夜의 宣傳會議에서 學生團의 大多數參加를 決議하고 便衣糾察隊를 組織하야 大大的 活動할 것을 協議하얏는바 罷業은 더욱 繼續되리라고 보인다 特히 注目할 것은 日本租界內居住中國人은 便衣隊의 脅嚇으로 租界外에 退出하고 今朝來 租界周圍에 軍隊를 配置中인데 이로써 日本警備隊는 要所에 電話線을 架設하고 要所의 地點에 土囊을 쌋고 防備의 完全을 期하는 中이다

武漢政治分會 英租界回收計劃
英商議는 反對聲明

(漢口十日發) 武漢政治分會는 第一, 二兩特別區의 다음에 第三特別區(舊英租界)도 中國側에서 完全히 掌中에 收하려고 劃策中인데 在漢英國商業會議所는 武漢政府에 對하야 反對의 聲明을 發하엿더라

嚴重을 極한 糾察隊監視
日淸汽船積荷不可能
◇反日會는 手段變更

(漢口十日發) 日本當局에 斷乎한 決心이 잇슴을 觀察함인지 反日委員會는 無謀한 非常手段을 取함을 꺼리는 듯하다 一般勞働者를 强制하는 手段은 될 수 잇는 데까지 避하고 日本商店, 會社에 勤務하는 買辦, 事務員及使用中國人等을 脅迫하야 間接的으로 勞働者를 罷業시키는 持久法에 出할 形勢이다 本日午後에는 便衣糾察隊가 日本棉花, 伊藤洋行 其他商店의 使用中國人을 脅迫하야 退却시키엇는데 그 風潮는 益益熾烈을 加하려 한다 또 日淸汽船의 船積은 依然不可能으로 同倉庫에는 糾察隊가 嚴重히 監視中이더라

(東京電) 漢口反日暴動에 對한 抗議를 國民政府에 提出하는 同時에 一方暴力을 가지고 하는 反日會의 行動에 對하야는 가장 强硬한 高壓手段으로써 기어히 鎭壓할 것을 決意하고 來休會後再開議會에 臨하야 田中兼任外相으로부터 此에 對한 態度를 明確히 聲明할 터이더라

武漢衛戍司令 胡氏面會廻避
桑島漢口總領事의 直接會見抗議不能

(東京電) 漢口反日暴動에 對하야 田中外相은 九日夜 桑島總領事에게

(漢口十日發) 漢口桑島總領事는 事件發生과 同時에 武漢衛戍司令 胡宗鐸氏를 訪問하려고 하엿스나 胡氏는 巧妙히 居所를 감추엇슴으로 會見하고 抗議를 할 수가 업시 되엇다 또 事件發生以來 共產黨時代의 過激分子로 된 各種工會가 繼續發生中이더라

萬縣占領 楊森軍撤退
郭汝錫軍

(北平九日發) 重慶軍의 郭汝錫軍은 鄭州忠州를 占領하고 다시 五日午後 萬縣을 占領하엿다 楊森軍은 居山方面으로 撤退中이더라

桑島總領에게 嚴重態度訓電
强硬한 高壓手段으로써 反日會行動에 對抗할 터

(東京電) 上海를 中心으로 한 漢口, 南京, 天津, 北平各方面의 排日運動은 最近暴力化하고 더욱이 運動의 中心은 國民政府와 密接한 關係를 가진 市黨部의 反日會임으로 日本政府에서는 此를 重大視하고 此等의 排日貨運動의 煽動에 對한 證據를 蒐集하야 嚴重

日本과 東三省과의 諸條約은 一切無效
東三省民間代表와의 會見中
王外交部長言明

(北平十一日發) 王正廷氏는 昨日 東三省民間代表와의 會見中
一、東三省과 日本과 締結한 各條約은 一律로 無效로 함
二、旅順大連及滿鐵, 安奉兩鐵道는 現在回收準備에 着手하엿다
一、東三省의 外交權은 全部中央에 屬하게 할 것이라고 言明한 旨를 國聞社는 報하더라

日本態度如何不拘 中央의 指揮에 服從
統一後外交權은 國民政府에 잇다
張氏에 對한 蔣氏回訓

(上海十日發) 張學良氏는 七日附로써 東三省에 在한 滿蒙問題其他의 對日外交交涉의 方針을 如何히 할 것인가를 蔣介石氏에게 請訓하엿던바 蔣介石氏는 九日附로써 統一後의 外交權은 國民政府에 잇슴으로 日本政府의 態度如何에 不拘하고 國民政府의 指揮에 從하야 處置할 것이다 政府는 此에 對하야 完全히 責任을 진다는 回訓을 發하엿다고 傳하더라

楊宇霆、常蔭槐兩氏
張學良氏命으로 監禁
◇原因은 兵工廠關係?

(奉天十一日發) 張學良氏는 楊宇霆、常蔭槐兩氏를 十日午後四時부터 五時사이에 監禁한바 右는 兵工廠關係인듯하더라

事에게 對하야 詳細한 報告를 求하고 日本居住民의 生命財産保護에 對하야 嚴重한 態度를 取할 것을 訓電하고 岡田海相도 第一遣外艦隊에 同樣訓電을 發한바 今後의 警備는 司令官米內少將의 裁量에 맥기기로 되엇더라

陸戰隊와 軍艦四隻
◇武漢警備力

(漢口十日發) 目下漢口의 警備力은 陸戰隊外에 砲艦利根, 勢田, 鳥羽, 驅逐艦樫等 四隻이 잇고 日本居留民은 九日現在 二千四十四名內 五百二十名은 租界外居住者로 日中間의 去來는 依然杜絶되고 輸入貨物運搬은 絶對不可能이다 또 目下武漢에 在한 中國軍隊는 胡宗鐸氏의 第十六師와 夏威氏의 第十五師이더라

東三省에서도 二月一日부터
一齊關稅自主實施
對日原料供給停止를
中央黨部서 秘密命令

(奉天十日發) 南京政府로부터 張學良氏에게 電命한 關稅自主의 實施에 對하야 奉天當局에서는 大連營口에서 外國人民政府의 新稅則에 照하야 關稅自主를 實行하기로 決定하고 近近外國商人에게 右의 旨를 布告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具體的 方法으로서는 爲先 日貨를 購入하는 商民을 嚴重히 調查하고 萬若 日本側이 二月一日부터 實施할 新稅則에 應하지 안흘 時는 中國商民의 日貨購入을 嚴禁하고 貿易의 斷絶을 計劃인 듯한데 日本領事館에서는 前途를 자못 重大視하더라

(北平十日發) 關稅協定交涉이 成立될 希望이 업고 또 日本이 中國의 關稅自主實施에 重大한 障碍가 될 模樣을 보고 中國側은 二月一日을 期하야
一、徹底的으로 日貨를 排斥할 일
二、日本人에게 原料供給을 絶對로 停止할 일
三、租界外雜居日本人의 驅逐
四、日本租界의 孤立
等을 實現하려고 國民黨中央黨部의 名으로써 全國各地에 秘密命令을 發하엿더라

內外의 諸難關으로
內閣議會通過無望
民政黨은 漢口事件으로
政府에 更迭을 肉迫할 터

(東京電) 民政黨에서는 刻下의 政局을 가지고 現內閣을 脅威코저 하는데 現內閣은 到底히 今議會를 通過하기는 不可能하다고 보인다 即
一、某重大事件의 進展
一、對中問題가 全혀 沈滯된 事
一、東三省에서 國民政府에 屈從함에 따라 滿蒙의 權益喪失의 危機에 瀕한 事
一、租讓問題에 對하야 貴族院方面의 形勢가 益益險惡하야 無事히 通過할 希望이 업는 事
一、自作農法案에 對한 勝田文相立案에 對하야 三土藏相이 難色이 잇는 事
一、新黨俱樂部와의 提携成立도 甚히 悲觀할 狀態에 잇는 事
右中 어느 問題이나 現內閣에 對하야 重大案件이오 더욱이 그 어느 것이나 現內閣에 對하야 不利한 傾向으로 進行中인 것은 最近 民政黨에 達한 諸情報가 이를 證據한다 그中 하나이라도 現內閣의 有利를 報하지 안코 特히 對中諸案件에 關하야는 將히 現內閣의 致命傷이라 하야 此機會를 놋치 안코 突擊하면 現內閣의 牙城을 陷하기는 容易함으로 活氣를 加하엿더라

(東京電) 民政黨은 今回의 漢口事件展開를 重視中인바 要컨대 現內閣이 存續하는 限에는 排日의 機運은 各地에 瀰蔓하고 말아서 第二, 第三의 暴動事件이 이러나려는 形勢에 잇다 말아서 政府가 苛酷한 手段을 取하면 取할사록 事態는 反히 惡化할 憂慮가 잇는 以上은 速히 現內閣을 更迭시키어 局面의 打開를 圖하는 外에 他途가 업다고 來二十日黨大會에서 發表할 宣言에도 政府의 責任을 뭇고 다시 當日의 總裁演說에도 此를 高調할 터이더라

眞相報告와
完全防備命令

(東京電) 漢口排日暴動事件에 關하야 十日朝에 이르기까지 外務海軍兩方面共히 事件에 關하야는 何等의 入電이 업슴으로 이상히 생각하는 바 이는 何等의 大事件이 업슴으로 이상히 생각하는 바 濟南事件의 前例도 잇서서 外相大臣은 桑島漢口總領事, 米內遣外艦隊司令長官에게 事件의 眞相報告及事前에 遺漏가 업도록 手配하라는 訓電을 發하엿더라

雙橋無電對策
外務省에서 協議

(東京電) 九日外務省에서 陸海, 外務, 遞信各省官吏와 三井物產北平支店長 大村總太郎氏가 參加하야 雙橋無電善後措置를 協議하엿는데 近近上海南京에 新無電臺를 建設하려고 하면 國民政府는 近近 上海 南京에 新無電臺를 建設하려고 昨年米國『라듸오·코-포레숀』으로부터 延期後 『카로니』無電臺二臺의 材料를 購入後 建設準備中인바 右가 竣工될 時는 日本旣得權利는 現著히 侵害를 未免할 것으로 이 對抗策에 對하야 協議한 것이더라

濟南解決案에
調印하면 撤兵
中國側에 具體條件提出
◇西田領事聲明

(上海十日發) 國民政府發表에 依한 濟南情報에 依하면 西田領事는 津浦鐵道開通에 對하야 日本側은 何等反對를 하지 안코 濟南事件에 關한 解決具體條件이 이미 提出되고 國民政府가 調印에 同意만 할 것 가트면 日本軍은 卽時撤兵하겟다고 述하엿다고 하더라

『메』總稅務司
就任式擧行

(上海十日發) 新任總稅務司 『메-즈』氏는 十日午前十一時 上海稅關에서 正式으로 就任式을 擧行하엿더라

濟南在留日官憲의
津浦線妨害를
中國側이 列國에 聲明
◇日本公館은 事實否認

(北平七日發) 國民政府는 濟南에 在한 日本官憲이 津浦線의 全通을 妨害하고 또 多數의 機關車貨車를 押留한 外에 鐵道借款에 支拂할 利益을 엇지 못한다고 關係列國에 聲明함에 對하야 日本公使館側은 全혀 事實이 업다고 否認하엿다 卽 津浦線의 車輛은 昨年北軍이 退却할 時에 거의 使用할 수 업는 것만 남기어두고 使用할 수 잇는 것을 가지고 갓슬 뿐 外라 또 目下 日中兩國官憲의 手로 修理中이라고 述하고 南方職工의 濟南入을 拒否한 것은 反日運動을 煽動하야 日本居留民의 生命財産을 威脅할 憂慮가 잇는 까닭이라고 하더라

國民新聞社長
德富蘇峰氏退社

(東京電) 德富蘇峰氏는 오래동안 國民新聞社와 運命을 가티하여 오던바 經營關係上 根津嘉一郎氏와 提携하엿는데 當初의 約束에 反하야 編輯에 干涉을 할 뿐 아니라 未拂込株金을 拂込치 안코 또 拂込한 株金은 同社의 貸金으로 한 後 其利子를 假拂을 要求함으로 氏는 金權에 부대기어 마침내 墳墓地가 될 同社를 退去케 되엇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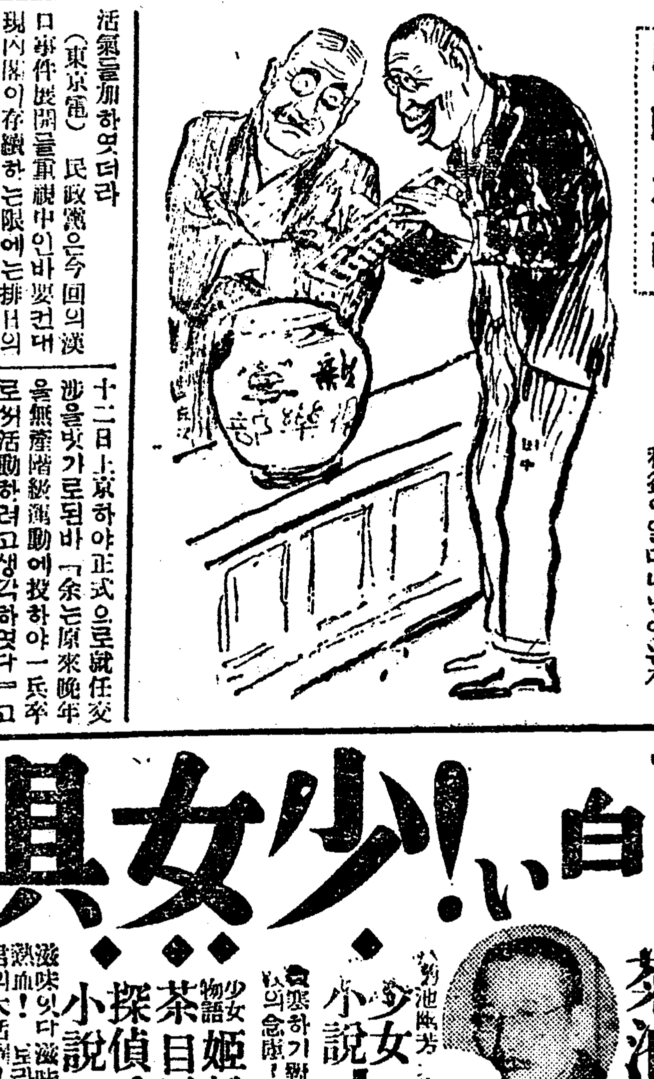
高野博士無產黨入

(東京電) 勞農日本大衆黨創立의 際에 中央執行委員長에 推薦된 大原社會問題研究所長 高野岩三郎博士는 研究所와의 關係로 種種考慮中이던바 大衆黨側의 熱望에 依하야 今回無產黨入을 決意하고 十二日上京하야 正式으로 就任交涉을 밧기로 된바 『余는 原來晩年을 無產階級運動에 投하야 一兵卒로서 活動하려고 생각하엿다』고 함으로 社會民衆黨의 安部磯雄, 舊勞農黨의 大山郁夫氏와 가티 各各 特色을 가진 無產黨運動의 三羽烏가 되더라

佛國政府는 否認
露佛借款交涉
中國에 在한 責任을 더 擴大치 안켓다고

(巴里五日發) 勞農政府가 中國關西로부터 借款을 어드려고 非公式으로 交涉한다는 哈爾賓方面의 情報에 對하야 佛外務省은 極力此를 否認한다 露佛間의 經濟交涉은 過去一個年半에 亘하야 停頓되어 잇슴으로 原則에 잇서서 佛蘭西는 새로히 露西亞에 借款을 與하려고 하면 協定을 하여야 할 露佛債務關係解決案中의 一部로 할 것을 恒常固持할 뿐만 아니라 佛蘭西는 目下의 處地로 中國에 在한 責任을 擴大함과 가튼 일은 夢想도 하지 안는 바이라 하더라

朝鮮漫畵



◇(床次田中會見) 이번 행보에 利益이 얼마나 남엇는지

過去一年 歐米政局槪況 (九)
高永煥

×

上記한 바와 가티 聯合國側에서는 聯合國側의 對米國債의 全額과 佛, 白, 伊의 戰時荒廢地復舊資金全部를 獨逸에게서 賠償金으로 바더내려는 腹案인데 그中에서 가장 重大한 問題解決의 열쇠라고 할 만한 것은 두말할 것 업시 對米債問題이다 換言하면 만일 聯合國側에서 獨逸의 窮乏한 財政狀態를 생각하야 그 賠償金을 相當히 輕減하게 된다면 聯合國側에서는 다시 米國에 向하야 戰債輕減의 要求를 하게 될 터인데 米國은 賠償問題와 戰債問題는 全然別個의 問題인즉 根本的으로 다른 두 問題를 混同해서는 到底히 안된다는 것도 相當할 수 업다고 一言으로 딱 拒絶한다 여긔에 賠償과 戰債와의 所謂不可分의 關係論이 다시 再燃하게 될 것이다

×

勿論 米國은 前記의 『제네바』 六國會議에도 參加하지 안햇스나 여러 가지 事情으로 因하야 賠償問題의 終局的解決에는 至大한 關係를 가지고 잇는 나라인 까닭에 非公式으로라도 米國의 意嚮을 들어보지 안코는 問題의 解決은 不可能할 터인 故로 聯合國側에서 問題의 賠償不可分論을 쓸 念慮가 잇기 때문에 米國에서는 미리부터 警戒하고 잇는 모양이다 그런으로 『쿨니지』 大統領은 十一月十一日 演說하는 中에 獨逸賠償債券을 米國에다 억지로 팔려고 하는 것은 到底히 容認할 수 업는 바이다 非但 賠償에 限할 뿐만 아니라 今後로는 米國이 歐洲諸國에게 財政的 援助를 할 수는 업다 歐洲列國이 軍備는 마음대로 擴張하면서 米國에게 財政的 援助를 바란다는 것은 根本的으로 틀린 議論이라는 意味를 强硬히 하엿스며 또 次期大統領으로 當選된 『후버』氏도 『엇쇼돈』에서 演說하면서 賠償과 戰債問題는 全혀 別問題로서 決定된 事件이다 歐洲諸國은 全然 米國人의 觀光客이 歐洲에다 갓다 준 金錢만 가지고도 對米債는 充分히 支拂하고 남을 것이라고 長廣舌을 發揮하야 賠償問題에 關해서는 如何히 하든지 戰債問題와 關聯할 수 업다는 決心을 分明하게 보엿다 그래서 米國은 何等의 讓步를 하지 안켓다는 決心은 非公式으로는 委員을 參加식힐는지 몰라도 正式으로 代表를 派遣하지는 안흘 모양이라고 한다

×

外電의 報道한 바에 依하면 只今 會議準備中인 所謂賠償專門家會議는 아모리 빨라도 今年晩春에나 열리게 되리라는데 該會議의 任務로 말하면 聯合國側이 要求할 賠償總額에 對하야 獨逸의 支拂能力이 잇는가를 細密히 審査하야 賠償總額을 決定하며 또 그 支拂方法도 아울러 講究할 터인데 그것은 最少限度로도 約 四百億乃至四百五十億馬克은 되리라고 한다 賠償總額이 그만큼 減少되는 것을 獨逸側에서는 果然 滿足하게 녁일는지? 안흘는지? 그는 別問題로 姑捨하고라도 賠償額이 幾許間 減少될 것만은 不誣의 事實인데 萬一 얼마든지 減額이 되면 聯合國側에서는 반드시 그 減少되는 만치 米國에 向하야 戰債의 減額을 要求할 것이다 그러나 米國에서는 旣述한 바와 가티 戰債라는 單一弗이라도 減해주지 안흘 배짱을 가지고 어듸까지든지 버티며 다시 두말도 못하게 拒絶할 것은 明若觀火한 未來事이다

×

그러면 이 來頭의 所謂賠償專門家會議의 收穫이라는 것은 果然 무엇이 될 것인가? 勿論 吾人의 見解로 말하면 戰爭의 責任에 對하야 顯微鏡的 輕重의 差異는 多少 잇슬는지 몰라도 結局은 同盟國側과 마찬가지로 聯合國側에도 그 責任을 지지 안흘 수 업는 까닭으로 聯合國側에서는 獨逸의 賠償金을 全部蕩減하야 賠償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는 同時에 米國에서도 戰時에 非常한 巨額의 暴利를 獲得한 것은 天下周知의 事實인즉 只今 다시 그 戰債金을 全部다 바치드라도 決코 何等의 損害될 것은 업슬 터임으로 今後로는 永永蕩滅해주지 안코는 世界의 平和와 人類의 幸福을 爲하야 努力한다고 自誇하는 米國으로서는 今回에 한번 大英斷을 하는 것이 至當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米國資本家들의 心算은 余의 希望과는 그 距離가 넘우 遼遠하기 때문에 所謂賠償專門家會議도 例의 賠償問題不可分論으로 甲論乙駁하야 多少의 紛糾를 거듭하다가 結局無爲의 幕을 닷치게 되리라는 것은 只今 分明히 斷言할지라도 過히 危險性이 업는 豫言이 될 것이다

人事消息

▲方台榮氏(朝鮮印刷常務) 哈爾賓에 出張中이든바 昨朝歸京

八面鋒

○內外의 諸難關은 難關대로 잇고 게다가 新黨과의 提携도、實現될 可望이 업는 듯하니
○現內閣으로서、議會無事通過는、到底히 不可能하다는 것이 民政黨側의 觀測
○그런데 또한 王正廷氏는、東三省民間代表에 對하야、日本과 東三省間에 締結한、모든 條約은 一切無效라고 言明
○그야말로、問題가 層生疊出할 셈이니、田中首相의 머리속도 엔간이 어수선하렷다
○楊宇霆、常蔭槐兩氏는、張學良氏命令으로、十日에 突然監禁을 當하엿다
○어수선한 판속!

出た!面白い面白い!少女俱樂部二月號 早く早く御覽下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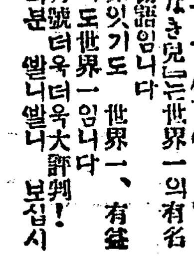
日本中 少女여러분! 인제야 喜報한 二月號가 낫습니다 이것을 놋치지 마십시오 傑作뿐임니다

◆名作物語繪本 목숨바친雙六! 孝子『す君』! 忠僕代身-馬子의 노래-忠臣 松王丸 有名한 物語와 아름다운~五大畵伯의 大傑作

◆まごころ手紙書帖 (二十頁) 西條八十、野口雨情、北川千代、佐伯孝夫諸先生의 片紙手本!

日本中の少女方大喜び大きさ 『家なき兒』

菊池幽芳先生傑作 『家なき兒』는 世界一의 有名한 物語입니다 滋味잇기도 世界一입니다 二月號 더욱더욱 大評判! 여러분 빨니빨니 보십시요



◆少女小說 七本椿 吉屋信子 健氣한 妹兄等의 念願! 盛一은 무엇을 決心하엿는가?

◆少女物語 姬松小松……山中峯太郎

◆茶目子の日記……森田みね子

◆探偵小說 正義の楯 宮崎一雨 熱血! 快少年의 大活躍! 滋味잇다 滋味잇다 참말痛快

◆少女小說 堀部安兵衛 (行友李風) 毬の行方 (佐藤紅綠) 月かげの道 (大佛次郎)

◆動物感淚繪話 自然히 눈물나는 感心할 滋味잇는 物語!

きつね遊び おもしろい面白い やすゑ先生のステキな傑作

◆探偵寫眞小說 眠り人形 野村胡堂 藤田陽子主演! 松竹撮影 참말滋味잇다

◆新讀者大歡迎 仲よし大會

『이外에 滋味잇는 讀物如泰山』 非常한 大評判! 빨니빨니 보십시요

◆定價五十錢(送料三錢) (東京本鄕) 大日本雄辯會講談社

宗教信徒가느는反面 藝娼妓와花柳病도增加

=십팔의량식을차저헤매는칠십만신도= =먹기위하야오천명에창기가뎡조매매=

戰慄할害毒은子孫에까지

조선의 교육과 종교와기타사회 덕민중덕교화(敎化)의긔관은날 로발달 보급되야 이것을십칠년 전에비하면 실로 장족의발달을 날우어 문화의수준(水準)은 놀 라울만큼 놉하젓스며 정신상으 로는 반석가튼 신앙의셕리가민 중의 심장에 깁히박혓다하는데 그반면에는 나날히 창기(娼妓) 의수효가늘고 술과 담배와ㅣ향 수바르는 사람의 수효가늘어가 며 매독,림질,등모ㅣ든 괴악한 화류병균(花柳病菌)이근십만흔 민중의 혈관속에서 자면질하야 생리상으로 멸망의 선을그리는 일면에 그유전(遺傳)의 해독을 남어 불행에우는 가련한청년남 녀의수효가 늘어가는 괴현상을 보게되엿다 이제통계우에나타 난수자를살펴보면

◇佛敎
大正元年末 一八七개소
昭和元年末 三五一개소

◇基督敎
大正元年末 二、二六九개소
昭和元年末 三、六六四개소

이와가티 신도에잇서서는 지난 십오년 간에 약삼배가 증가하엿스며불 교에잇서서는 약십할이 증가하 엿고 긔독교는 오할이증가하엿 는데 그 종교선교자와신도의수 효는

◇佛敎
大正元年末 선교자 [illegible] 신도 [illegible]
昭和元年末 선교자 [illegible] 신도 [illegible]

◇基督敎
大正元年末 선교자 [illegible] 신도 [illegible]
昭和元年末 선교자 [illegible] 신도 [illegible]

이와가티 증가하엿스며 각교파 는 서로 경쟁하야사회사업에교 화사업에 권력을 다하는중으로 그찬란한 정신뎍 구제사업의광 채는날로 빗난다 그러나그 인 간구제를 부르짓는 종교의뎐당 (殿堂)미테는 해마다 창기의수 효가늘어 창기가 삼천일백사십 여명이며 조선총독부의원(朝鮮總督府醫院)과 밋 각도립의원(道立醫院)에서시행한건강진단 성적을보면

明治四四、 조선인창기 [illegible] 일본인창기 [illegible]
大正七、 조선인 [illegible] 일본인 [illegible]
大正一二、 조선인 [illegible] 일본인 [illegible]
昭和一、 조선인 [illegible] 일본인 [illegible]

으로 십칠년동안에 조선인은두 할이증가 하엿스며 일본인은칠 할이증가 하엿는데 이밧게일천 오백삼십구명의 예기(藝妓)가 잇서 대정십년으로부터 륙년동 안에 팔할이상의 증가를보게되엿 고 맹렬히 증가하는중으로 이에 서중박한 조선사람의 생활에서 일년에 일천삼백 사십삼만오천 이백여원의 유흥비를쓰면서 칠 천여만원의 술을마시고 그러고 도 막대한청량음료수(淸凉飮料水)와모괴수등물을 소비하며그 결과에 륙천팔백오십구명의 무서운화류병환자와 오천구백사 십오명의 생식긔병환자를 내이 게되는데 이제소화원년 일년간 에 조선총독부의원과 각도립의 원에서 진찰치료한 환자수효를 병명별(病名別)로 살펴보건대

梅毒(後天性) 조선인남 [illegible] 녀 [illegible] 일본인남 [illegible] 녀 [illegible]
梅毒(遺傳性) 조선인남 [illegible] 녀 [illegible] 일본인남 [illegible] 녀 [illegible]
軟性下疳 조선인남 [illegible] 녀 [illegible] 일본인남 [illegible] 녀 [illegible]
梅毒性諸症 조선인남 [illegible] 녀 [illegible] 일본인남 [illegible] 녀 [illegible]
泌尿生殖器病 조선인남 [illegible] 녀 [illegible] 일본인남 [illegible] 녀 [illegible]

으로 그중에가장 주의를요하는것은 유전성매독이니 아모죄악업는 인간의씨종이인 어린자녀가 부모의 순결하지못한 행락(行樂)의희생이되야 영우히다시를 될수업는 무서운 화류병에걸려 심하여는 눈이멀고 코가떠러지 야 비관과자포자긔의결과 모ㅣ 든범죄를 감행하게되며 불륜과 패 륜의 유전성매독환자가 잇는데 이화류병이 간접으로 원인이되 야 아편에 중독이되는자가 적지아 니하고 학교에서공부하는 학생 으로 흑은자녀의교육에 모성 (母性)의 사랑을 가추기우리든 안 해로서 아비와자아비의 이화류 병을 덕정하야비관,타락,에빠지 는실례가적지아니한바 전기한 바와가티 해마다 격증하는종교 의포교소와 선교사 신도의수효 에비 조하야 매우괴의한 현상이 다

다음에종교 신도의증가하는 상 황과창기의 년년증가 상황을비 교해보면 창기는 명치사십사년 으로부터 소화원년 까지의일년 동안에 칠할증가 하엿는데종교 신도는 실로삼배반의 다수가증 가하엿다

順化院身勢지는 傳染病延員二萬餘

◇전여명의창질이심한시내◇

公衆衛生普及의急務

전염병환자를 수용하기로 유명 한시내와인동의 순화병원(順化病院)에서 지난십이월중에입원 한전염병환자수는 오십칠명 이 며도사망한자는여덜명에달하야 실로날곱명에한명씩죽은세음이 되다하며 더욱순화병원 이외에 잇는텰도병원(鐵道病院)이나기 타여러가지병원에서취급한입원 환자총수는 일백 사십칠명인바 그중에전패자는 일백 륙명이며 사망자는 십삼명에 달한다는데 순화병원에서만작년중에취급한 환자연인원수(延人員數)가이만 삼천사백칠십오명의다수에달한 다더라

十日午後鍾路署 法律戰線社搜索

지사장송운씨를인치

多數한文書도押收

시내종로서 고등계에서는 십일 오후네시경에 갑작이활동을 개 시하야 시내락원동(樂園洞) 칠십오번디 에잇는 법률전선조선 지사(法律戰線朝鮮支社)사무소 를 샅샅치수색하야 다수한문서 와십수건의 법률전선잡지를 압 수하는 다른한편 전긔법률전선 조선지사장으로잇는송운(宋雲) 씨를본서로 인치하야다가 류치 를시킨후 엄중한취됴를 계속중 인데 사건의내용은발매금지(發賣禁止)의처분을바든 법률전선 잡지를각디방으로발송하야발매 하엿다는 혐의이나 사실여하는 아즉불명 하다더라

女子寄宿生爲하야 兪亨植氏特志

박황하는그들에게

客舍十四間提供

시내무교뎡에잇는 경성녀자긔 독교청년회긔숙사는어몽셜반입 에도불구하고 그집주인 백씨로 부터방매하게되야 임의집장 은 하여곳코참출간 갈곳은업서 일 반긔숙생들은 로두에 방황하게 되야동회총무유각경(兪珏卿)씨 이하간부들은 사면에 분주하면 서방을구하엿스나 종시 구하지 못하고긔숙생의 일부는간부 측 에서주선하야 다른곳으로 보내 고남아지 긔숙생은 엇지할수업 서사실상으로집을일흔사람의고 통을격게되얏든바이러한소문을 드른시내인사동십오번디의유 형식(兪亨植)씨는이에깁히동정 하야씨의개인사작십사간을무료로빌 려주기로하야작십일에긔유형 식씨의집으로입사하얏다더라

清進洞의 保育女校盟休

십일부터 돌연맹휴

시내청진동(淸進洞)에잇는갑자 보육학교(甲子保育學校)의륙십 여명녀학생은 십일일부터는일 제히동맹휴학을단행하얏다하며 동요원인은 학교당국에대한 한 불평이도화선이된것이라는데학 교당국에서는 바야흐로대책을 강 구중이라더라

◇깃부게노는어린텬사들

鍾路管內理髮業者 料金引下를決議

三十五錢을三十錢으로 反對者도多數한듯

시내종로서관내에 흩터저 잇는 륙십여처 조선인 리발업자(理髮業者)들은 수일전에시내안국 동에잇는 종로 리발소조합(鍾路理髮業組合)사무소에 집합하 야 종래에 밧든삼십오전의리발 료금을 삼십전으로 인하하자는 결의를한후 즉시 그뜻을시내서 소문뎡(西小門町)에잇는총조합 에다통고하야 오는 십오일까지 총조합의 결재를 밧게되엇다는 데 그와가티 갑작이리발료금의 인하를 결의케된 원인은본시규 뎡상으로는 삼십오전이 종로조 합관내에잇는리발소의보통료금 이나 본뎡 조합관내에잇는 리발 소의 보통료금은 삼십전인관계 상 종로조합관내의 리발소로서 는 흑 어떤곳에서는 본뎡관내의 리발소와의 경쟁상엇절수업시 삼십전을밧는곳이만흠으로료금 이불통일(不統一)한폐단을업시 하기위하야 그와가티삼십전으로 인하하게된것이라하며 료금을 인하함에는 적지아니한 반대자가잇 슴으로 그것이 실현되기까지에 는 상당한시일이 걸리리라더라

某種不穩計劃한 某高普生又引致

구일오후효자동방면에서

接踵하는學生事件

시내종로서고등계에서는지난구 일오후에 시내 효자동(孝子洞) 방면으로 부터 리긔호(李岐鎬) (一七)이라는 시내 모고등보통학 교삼학년생 한명을 본서로인치 하야다가 구류처분에 부친후밤 금비밀리에 엄중한 취됴를하는 중인데 사건의내용은 비밀에부 치나 탐문한바에의하면 근래에 연종하야 발생하는 학생운동을중심 으로한 모종의 불온계획을 새로히 진행하고 잇섯다는혐의 이라더라

나의追憶 [20]

장사도맘대로못하든 四十年前의朝鮮商界

一條光明은團結에잇다고

장사는사람속이는것으로만알던당시상인 지금은경제지감이잇도록크게변하엿다고

立志實業家 朴承稷氏談

박승직(朴承稷)씨는본시경긔도 광주인(廣州人)으로지금으로부 터륙십오년전에 간난한 가뎡에 서세상에나오는 첫소리를 지른 이후춘풍추우(春風秋雨)자십여 성상을고군분투(孤軍奮鬪)하야 써자수성가(自手成家)를한립지 전중(立志傳中)의인물이니현금 까시도공익사사장(共益社社長) 광장회사(廣藏會社)취체역(取締役) 등의요직을겸임하야활동 중이원긔왕성한 로실업가 의한 사람이다

×

◇……나더러추억담을하라시 니역시조선상계에 대한 회상이 담배먹든시대의이야기나한마디 할까합니다

그래도지금종로네거리를나아 가보면 길은넓고 크나큰가게 가즐비하야 밤이되면 뎐긔불 이켜저서 불야성을 날우지만 지금으로부터 약사십년전의 종 로는길이좁은 데다가 더구나 뎐긔불조차업섯슴으로밤이되면 야말로 캄캄한암흑 세계를닐 우어서모든상취인(商取引)은사 는사람이나 파는사람이나 다가 티낫에만하엿섯고 밤에는 전혀 하지들못하엿습니다

◇……그쁜만 안이라 당시의 상계는종로에주비전이라는것이 잇섯서 각전에서 다각기자긔 파는것만 팔엇지 남의집에서 파는물품은 전혀팔지를 못하엿 습니다이러케 말하면 무슨뜻인 지모르시겟지마는그때에는백목 전(白木廛)이면백목만팔엇지명 주가튼것을팔지못하엿스며또명 주전에서는명주동속만팔엇지결 코백목가튼것은 팔지못하야 각 전에서전업을하엿든것입니다그 리고그때에는 전긔주비전에 종 사하는사람이외에는아모리자본 이잇는사람이라도자유로히장사 를하지못하엿섯습니다

◇……그리고당시의상인이라 는것은남을 속이어먹기에 만눈 이벌하야볼피악한일이다만혀 섯스니가량한두가지례를들어보 면이러합니다

망건전(網巾廛)에서는손님이 견양을가지고와서 망건을 구하 는데그때마츰 자긔집에 그견양 에맛는 물건이업는때에는 안에 가서가지고 나온다고 들어간후 몰래그견양을 잘러가지고 나 와서 맛는물건이잇섯다고 실상 은맛지안는 망건을 팔아먹은후 그손님이 다시올가바 다른망건 가가와 립시로 하로동안가가를 밧구는일이 례사이엇습니다 그 러기에 종로에잇는 망건전은하 로걸러큼식 서로히 가가를밧구 엇섯습니다

◇……또포전(布市廛)에서 는일광(日光)이 빗나는 곳에서 는낫분물건을 조타고 팔아먹을 수가업스니까 반드시 상뎜주위 에흑막(黑幕)을처서어둠침침 하게만들은후 물건을 팔어먹엇 지요 그리고 흑시손님이돌어온 때공교히 그것은 참말이켜켜젓 슬경우에는 갑작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애!수쟁이불러라」라 고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그때 그손님은 아마누구를 부르라나 부다생각하겟스나 그실은 케처 진장만을 나리라는 암호입니다

◇……그와가티 상인들이 모다 남을 속여먹기에만 눈이벌한까 닭에 갓득이나 상인을천히 녁이 는당시 사람들은 더한층상업은 하지못할것 상인은 천한것이라 는 관념을굿게 갓게되어상인자 신들도 혹시누가 무엇을하느냐 고뭇는일이잇스면 상인 이라기 가붓그러워서 항상 논다고대답 을하얏섯습니다 참호랑이 담배 먹을때의이야기지요

◇……또그리고 아까 말한바와 가티당시의 사람들은 아모리자 본이잇스나 주비전의 상인이외 에는 장사를할수가 업슴으로커 처에 각종의 밀매상인(密賣商 人)이 발호하얏섯스나일청전쟁 (日淸戰爭)이후에자유상업을허 락한까닭에 일청전쟁이후에는 누구나자본만잇스면자유로히장 사를 할수잇게 되엇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좀큰길이 라고는 남대문(南大門)과 동대문 (東大門)의 두길밧게업섯슴으 로 혹시자본이 잇다하야도덕당 한자리가 업서서 가가를내지 못하고『배우개』네거리 가튼좁 다란길에서 물건을 파는행상인 (行商人)이 벗적늘게 되엇습니 다그러나 행상인이라는것은인가 흔새벽에나 잠간 물건을팔다가 교통이 복잡해지면 다른데로쫓 기어가고 또비가오면 장사를못 하게되니 어듸 장사의근거를삼 을수가잇습니까 이에 나이외에 몃몃사람이 그들을 수용할목뎍 으로 광장회사(廣藏會社)라는 것을 창립하야 동대문시장(市場)을 창설하얏스니그것이벌서 지금으로부터 이십년전의 일입 니다

◇……그외에도공익사(共益社) 를창설하든이야기든지 기타이 야기할일은 만치만은 어듸그것 을이루다 말을할수 잇습니까? 다만끄트로 한마듸 말하고저하 는것은 일반 조선상인이다가려 단결하야 재래에잇든 모든폐습 을다 내버리고 공고한 결심으로 경제전선(經濟戰線)에나아가분 투노력하면 조선상계가 현금보 다더 쇠잔하지안을것이며 오히 려일맥의광명이 잇슬것을밋고 서 의심치안는다는것입니다

(사진은박승직씨)

百萬長者의愛妾과其子 結局殺人罪構成?

증인소환만백여인의대다수

江景富豪의死後魔幕

충남강경(忠南江景)에서백만장 자리건호(李健鎬)를 살해 한사 건은 누구인가? 법관(法官)의신 엄함한 묘사와 검사(檢事)의신 중한검증(檢證)으로 그가 생전 에 사랑하든첩 박소식(朴小植) 과그첩의아들 리수탁(李洙倬) 그처김영자(金英子)등세명이이 부서 운범죄자이라고 인뎡하야 검거이래만삼년이라는기나긴동 안을경성디방법원(地方法院)오 정(五井)예심판사의 손에서 예 심을 진행한다함은 본보에이 미 보도한바와갓거니와 동사건 은 의외로복잡하야 그증인만으 로도백여인에달하는 큰사건으 로 오정판사는 재작십일오후시 내모병원에 입원중인 고리건호 (故李健鎬)씨의본처(本妻)됴건 식(趙健植)(五○)녀사에게 림상 심문(臨床訊問)을 최후로 예심은 일단락을 보게되엇는데 그리 고 리면(裡面)은 실로 세상사람들의 풍설과 추측이구구하더니 만큼 그예심의결과 주목되는바결 국은 살인죄(殺人罪)이라는범죄 사실이틀림업는듯함으로불일간 에경성디방법원형사부공판에회 부하기로결뎡하얏다더라

咸南記者大會事件 來月廿八日에公判

고등법원형사법뎡에서

世聽을ㅅ는그審理

지난십일월중순에 경성 복심법 원(京城覆審法院)형사부에서도 역시 원심판결(原審判決)과 가 튼 판결언도를바든함남긔자련 맹(記者聯盟)대회사건의피고박 헌영(朴憲永)(二六)강긔덕(康基 德)(三○)등 일곱명은불복상고를 제긔하고 경성고등법원(京城高 等法院)에상고하얏다함은 이에 보도한바와갓거니와동사건은또 다시 오는이월이십팔일오 전경성고등법원형사부법뎡(刑 事法廷)에서 소천(小川)재판 장의심리와 이동(伊東)검사의 립회로 최후의 공판을개뎡할터 인바그판결이매우주목된다더라

平康致死犯

륙개월구형

강원도평강군평강면 라매리(平 康郡平康面羅梅里)김룡옥(金龍 玉)(三○)은 작년칠월이십삼일오 후여덜시경에 동리(同里) 김종 철(金鍾哲)이란 사람과 말다툼 끄테구타한바 김종철은 드디어 타박상(打撲傷)으로치사(致死) 하엿는데 작십일오전 경성디방법원 에서 말광(末廣)재판장의심리와 송정(松井)검사의 립회로 공판을개뎡한바 징역륙개월을 구형하 엿다더라

虛無한金鑛으로 七萬圓詐取未遂

위선계약금으로삼천원

日人을속인三人詐欺團

시내가회동 일백이십사번디(嘉 會洞)김준(金駿)(三六)외황군성 (黃俊性)(三○)리광래(李光來) (三○)민치열(閔致說)(四一)등네 명은충남천안군립장면 가산리 (忠南天安郡笠場面可山里)에잇 는 도모지금이 안이나는 금광을 잇기로남을 속여먹기로 공모 한후지난 십이월 십삼일시내 화동삼십팔번디단우정웅 (丹羽正雄)을속이어 그금광을 칠만칠천원에매매계약을한후위 선계약금으로삼천원을사취하야 분배해먹은후 남어지 칠만사천 원을나바더먹으라고계획하든중 시내종로서에 검거되어 그동안 엄중한 취됴를 밧다가 십일오후 에일건서류와함께경성디방법원 검사국에송치되얏다더라

朝鮮共産出獄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사건으

取調中의早大生 保安法違反으로豫審에

경성디방법원예심에

작년십이월에 종로경찰서에 테 포되어 경성디방법원에서 취됴 중이든 전라남도 해남군계곡면 방춘리(全南海南郡溪谷面芳春 里)사람으로 조도뎐대학생인 김정수(金正洙)(二八)는오래동안 심리하다가 보안법 위반으로작 일예심에회부되엇더라

咸南新上에大火 被害三萬四千圓

저미소긔관실에서불이나서

全燒三棟,白米燒失

작십일오후십일시로부터 함 남신상(新上)대정정미소(大正 精米所)긔관실에서 불이나서세 채의집이 전소하야버리고 정미 소창고에 싸두엇든 다수한백미 와 현미가 다라버려그손해액이 삼만사천원가량에 이르럿다더 라(신상특뎐)

李丁奎事件에 金泰榮氏辯護

자진하야 ◇무료로변호

중국상해(上海)에서모종사명을 띄고 조선에 들어오다가 부산 (釜山)에서검거된리뎡규(李丁 奎)(三二)는경성디방법원에서치 안유지법 위반으로오는 이월일 일에데일회 공판을 개뎡한다함 은이미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동 사건공판에 대하야변호사 김태 영(金泰榮)씨는자진하야변호하 기로되엇다더라

平康某報記者 治維違反

公判에廻附

원적을강원도평강군평강면서변 리(平康郡平康面西邊里)에두고 현주철원군철원면중리(鐵原郡 鐵原面中里)에서 보지국을 경영하든 모보지국 긔자 리의식(李宜植)은그동안경성디방법원 에서예심중이든바 금명간공판에 회부되리라더라

城川江鐵橋에 醉客墜落慘死

술이취하야

작년대수재에함흥오로(咸興五 老)부근의교량이전부유실되어 교통상 불편이심하든바 요사이 는강물이얼어 어름우으로 통행 하는데 그도낫이더우면 단닐수 업서 부근텰교로 통행하는일 이종종 잇섯든바 지난오일상 날게는 기곡면서원리(岐谷面西 原里)박윤근(朴潤根)이라는사 람이술이 취하야 부근텰교로건 너가다가 떠러저신음 하는것을 주북면(州北面)김지훈(金智勳) 이라는 청년이발견하고 그근처 라의준(羅義俊)의집에업어들여 갓스나 그날밤에절명 되엇다더 라(함흥)

空家에老人屍

시내의주통(義州通)일뎡목팔번 디뷔인집에나이일흔다섯가량되 어보이는조선남자한명이죽어잇 는것을통행인이발견하고곳소관 서대문서에 급보하야 계관이현 장에 출장하야 검시한 결과 영양부족 으로죽은것가틈으로사톄는경성 부로넘기엇다더라

●訂正 十日第二八七一號第二面에『鐵鎖로主人結縛』開城强盜事件記事中强盜二人이라함은金鍾洙연이요開城郡東本町三一三方永極은全然無根事實임으로訂正함

一個年百四十四校 明年부터一面一校

지상정무총감의세운계획

八個年이면完成

지상정무총감의 머겸은이라 하는일면일교주의(一面一校主義) 의초등교육 충실계획은 명년도 부터팔개년내에 완성할 예뎡인 데명년도 예산에는 일백사십교 분의신설 예산으로 보조비십륙 만팔천원을 계상하엿다는바 이 계획은 명년도로부터 평균일개 년에백삼사십교식 증설하야 팔 개년간에 총계일천칠십 사교를 증설할터인데 이에 보조할국고 액은일교 평균일천이백원식 으 로그총액 백삼십만원에 달한다 더라

公州不敬犯

공판또연긔 來二十一日로

공주(公州)불경범(不敬犯)리규 석(李圭奭)에대한경성복심공판 (覆審公判)의긔일은오는십사일 이든바 담임변호사 허헌(許憲)씨의사정으로 동공판은오는 이십일일로 연긔하엿다더라

老婆電車轢傷

=경긔도

양평군고읍면읍천리(楊平郡古 邑面邑川里)이백사십번디강운 선(姜雲先)의처류씨(劉氏)(五三) 는지난십일오전열한시경시내의 주통일번디압뎐차궤도를통행하 다가때마츰련병장행일백칠십칠 호뎐차에치어 전치일주일을치료 할중상을바덧다더라

갑싸고親切한 ……商店으로 一等 當選社 東亞婦人商會

農家副業으로收益多大한 純鋼鐵捕獸器 米國直輸入廉價都散賣

一號 雉 鷄 用 一圓二十錢
一號半 鼬 狐 用 一圓八十錢
二號 狐 狸 穴 貂 用 二圓二十錢
三號 狐 狸 狼 用 三圓二十錢
四號 熊 豹 鹿 猪 用 四圓二十錢
十四號 猛 獸 用 八圓五十錢

京城鍾路二丁目十二番地 米國オニタ―會社 トラツプ販賣部 吉川支店

朝鮮最初의寶典인 金東成著 權悳奎校閱 最新鮮英辭典은 定價三圓

果然大喝采大歡迎裡에第一回로店頭에나아온冊子는全部賣盡되얏나이다製本할겨를이업시팔님으로未安하나次回는本月二十日頃에나오겟사오나原來手工을만히要함으로서全力을다하오나製本을할사이가업시팔녀나아가는未有의好景況을呈하나이다

京城鍾路二丁目八二 博文書館 振替京城二〇二三番

淋疾과梅毒은一家를滅亡하고社會를滅亡하는病입니다數十年間呻吟患者라도期會를利用하야問議하시요

京城禮智洞二五 濟衆院으로

登錄商標 萬世 만세 신는신래오임뎨

京城東大門外新設里一三一 萬世고무工業所 (振替京城一〇六二一)(電話(光)一五二八番)

所務主任(前大昌고무會社事務) 岩間金鳳亮 主任(前同會社營業主任)

萬世고무

廣告

皮膚、泌尿、花柳病 醫學博士 渡邊晋 京城黃金町入口日本生命裡 診察 十二時半外지及夕刻

內科(入院隨意) 氣及紫外線治療電 高永珣內科醫院 醫學士 高永珣 貞洞二二番地、電話光一六二六番 (西大門停留場에서貞洞入口)

全南兵營三仁里前監察李根培氏以老患呻吟不幸於今月二十八日午後一時五十分別世訃告

戊辰十一月二十八日 護喪 周瑞龍

嗣子 [illegible] 次子 [illegible] 三子 [illegible] 四子 [illegible] 長婿 [illegible] 從孫 [illegible]

發靷 戊辰十二月 [illegible] 永訣式 [illegible] 葬地 [illegible] 友人代表 [illegible]

十年間 朝鮮文藝變遷過程 (十)

◇八峰學人

無産階級運動의 自然生長過程

無産階級文藝運動은 無産階級運動全體의一部이니 無産階級運動의發生以前에 無産階級文藝의發生은볼수업는것이다 그런까닭으로 우리는먼저無産階級文藝發生을促한一般的情勢를分析한다

朝鮮에잇서서의資本主義의發展과 ××××××××× 의××階級으로의 成長을促하고그와한가지로 ×××階級運動의成長은 加速度的으로×××의運動으로轉換케하지아니치못하얏스니 民族的運動의唯一한總機關인靑年會聯合會의分裂以後로 各地의靑年團體의綱領規約의改定과 連成社會團體의族生은 이傾向을말하는것이다

그리하야 一九二四年三月에靑年總同盟이 二百餘團體의參加로서創立되고 同年四月에八十二團體의參加로 勞農總同盟이創立되고 岩泰에서大規模의小作爭議가爆發하얏스나 이爭議로因하야警察에檢擧된總人員이二百三十名이오 實刑을바든사람이四十餘名에達하엿섯스며 翌一九二五年에이르러서全朝鮮新聞記者大會가開催되엇슴에는 그것이小부르조아機關의新聞記者大會인지 社會主義者大會인지分間하기어려울만큼 絶大多數가社會主義者이엇고 新思想硏究會의後身인思想團體火曜會가中心이되어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가召集되엇슴에는 (警察의大會前日의禁止로大會는流産되엇섯스나) 參加團體가 四百二十餘團體에達하엿섯스며 一方으로 思想團體派爭의產物로 이民衆運動者大會에 反對하는團體가亦是이와相似한數字에達하얏섯스니 이것을보아도 얼마나無産階級的思想은 朝鮮社會에瀰漫하얏섯든가를推知할수잇슬것이다

그러나 同時에朝鮮의運動의無産階級運動化 小數識者의運動으로부터의 大衆運動化의이動은(中略) 大衆을組織하는活動을 하기는 하얏스나 그것은決局은(中略)朝鮮에 잇서서의近代的產業狀態의 未發達과政治狀態의不利와 其他의原因으로因하야 發生된派爭에不過한것이엇다 靑年會 火曜會 北風會等의中心團體는 各各地方의한團體를自己들의派로所屬시키기에熱中하야 學校에는運動의對象은(中略)自己네들團體와 團體사이에잇는것이되고 말엇스며 各各中傷과 暴露이그戰術이되엇섯다(이것은 朝鮮의運動이上海派 泥市派等海外의指導를밧어온까닭이엇다)

그럼으로이期間의 運動은全體性的으로把握한指導理論이업고 다만社會를 宣傳하고各各自派의勢力을 擴大하기爲하야 勞働爭議 小作爭議를 指導하야 오다가 나중에는 ○○系 火曜系니하야가면서 派爭에만 專心하게되고 또는各派의 分立도充分한 主義政策上의對立으로말미암아 超越된것이아니며 더구나各個派閥의結合도 全혀自然生長的結合이엇든것만큼 組織이엇 的運動形態이엇다

朝鮮新詩運動槪觀 (八)

그二十餘年間生成過程의展望

朴八陽

이『白手의嘆息』은말할것도업시 階級意識에눈뜬智識階級靑年들의헛되인嘆息을 노래한것으로 作者는이노래를通하여 作者自身이屬하여잇는 智識階級의無力을嘆息하는同時에『브·나로-드!』를고부르지즈며 農村으로 들어갈만한『검은손의所有者』들을 熟視하엿스니 이와가든意識은 階級意識을所有하지못한靑年에게는 가질수업는意識일것이다

詩에잇서서의新傾向派는 그初期에잇서서 上記한八峰金基鎭氏의製作인詩與篇과焰群社一派同人들의詩與篇으로서우고그命脈을保存하는觀이잇섯스니實로當時(一九二三年)에잇서서는 그들以外의 아모도그러한傾向의詩作을發表한이가업섯든것이다

(二)新傾向派擡頭의社會的條件

그런데이新傾向派(나는이말이適當한文字라고는 생각지아니하나 世上에서그러케불음으로便宜上그대로쓰기로한다)가擡頭하게되는社會的條件이 잇슬것이니 우리는그것을여긔에서잠간考察하여보기로하자 朝鮮文藝運動上 新傾向派擡頭의社會的條件이란말할것도업시

【첫재】는 現代資本主義經濟組織의××으로부터생기는勞働大衆의生活上困窮과社會的不安의事實

【둘재】는 이困窮과이不安에恒常當面하고또處하여잇는勞働大衆의 (中略) 에서부터出發한『階級思想』의世界的傳播

의두가지를意味하는것일것이다 이것은 朝鮮文壇上新傾向派擡頭의遠因을일운條件이라할것이오 그近因을일운條件을考察하려면우리는이위에서도 屢次이 試驗한바와가티 그것이擡頭하든當時의朝鮮社會情勢의考察이必要할것이다

朝鮮에色달은 이『階級思想』(讀者는筆者의 이러한漠然한文字가決코本意가아님을 諒解하라)이들어와 傳播되기시작한것은一千九百二十二年代의일이다 一千九百二十二年三月十五日에그創刊號를내인雜誌『新生活』은朝鮮最初의××主義硏究의雜誌이엇다 勿論그以前에學術的또는硏究的으로新聞雜誌等에 몃몃定期刊行物에이를紹介批判한것은잇섯스나그것을한主義로하여가지고엇더한意識알에集團的으로모혀서 이를紹介 硏究한것은雜誌『新生活』이 朝鮮에잇서서그最初의것일것이다 이雜誌가朝鮮에잇서서의社會主義硏究의先驅者金明植氏外몃몃 그同志에依하야 創刊되든一千九百二十二年代는朝鮮에잇서서 民族運動者와階級運動者間의思想上衝突과및實際運動上의衝突이頻頻히닐어나든때다 當時의緊張된社會的空氣와 民族, 階級兩思潮의鬪爭의經過를 여긔에서詳細히 말하지못하는것은 이위에서己未年當時의社會情勢를詳細히말하지못한것과똑가튼理由와事情이잇는것이라不得已한遺憾이라하겟거니와何如間一千九百二十三年에니르러서는階級運動者의勢力이漸次로伸張되어 全朝鮮靑年黨大會가開催되고各地靑年會의方向轉換(階級的으로의)이만히된事實만 으로보아서도當時의一般的社會情勢를大槪推想할수는잇슬것이다이社會的空氣가新文藝運動上에나타난것이所謂新傾向派의文學이오 또詩이엇다고우리는말하려는것이다

血族結婚의害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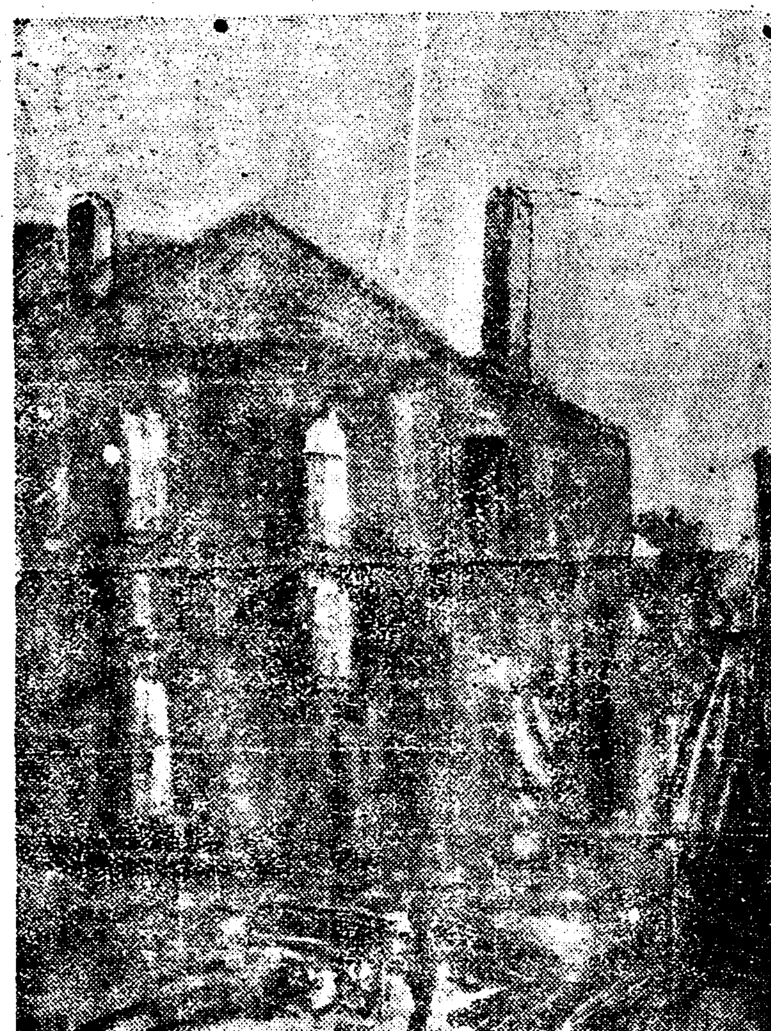
유뎐과화류병에주의할것 일가세리결혼은절대로못쓴다

권회에 말슴한바와가티 유뎐이란조흔것보다도 낫분것이 만흔법이니까 혈족결혼을 해가지고 나은자손은 조흔소질을유뎐밧는사람이 거의업고 낫분유뎐만 량친의쌍방으로부터두겹으로 밧어가지고 나오는일이 만흔것입니다

그런데 여긔에 비교하야아조 모르는사람사이에 결혼해 가지고난 아기들은 량친의조상과는 사뭇달른 유뎐의 성질을갓게됨으로 설령 조치못한유뎐을밧엇다하드래도 량친의 두편으로부터 거듭밧는법은업고 그만큼낫분유뎐의명도는가벼운것입니다

그런데 혈족결혼은 결단코자손에게 낫분유뎐만을 씌워주는것이아니라 돌이어훌륭한유생(優生)의인간을낫을수잇는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잇슴니다이러한 학사들은 가축을길러본경험이나 일본의 어느부락에잇는 혈족결혼의 성적을 실례로들어가지고 증명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논자의 례증은넘우나 경솔한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축을 길르는사람에게는 엇더케우량한소질의것을 만들가하는것을 거듭하야 우량종을선택해가지고고작고 **개량함을** 함으로그결과로나오는것이우량할것은물론입니다 또는 일본의 어느 부락이나『에집트』의『부도레미-』긔의실례를 보면은그것은 문화생활과는 멀리떠러저잇는 산간벽디에 주거하야래고배 조상래에오늘날까지 조치못한 소질의유뎐을 밧지안코 지내온종족에대한실례 임으로이것을 일반사람에게 응유해가지고 설명하는것은 대단히잘못된 관찰이라고할수밧게 업습니다 리치속이 이러할으로 혈족결혼은 자손에게언잔은 유뎐을 주지안는다는 학설은

채용될수 도업슬뿐아니라가축개량과 가튼실례는 우생학상(優生學上)도로혀혈족결혼이해롭다는 것을증명하는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러케되는것입니다 부친에게서 엇더한조치못한유뎐을 밧엇다 하드래도 모친에게서 조흔유뎐을 밧엇스면원긔신훌륭한 소질을 가진사람이될수잇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가튼줄기의 유뎐을 밧는혈족간의결혼보다도 아조 계통을달리한사람들 사이의결혼이 조금이라도조흔 어린아해를 낫케되는것입으로 혈족결혼은 절대로하지안는것이 좃습니다 (完)



德源 李南奎 (普通學生畫)

神의存在否認으로 宗敎界의憤激

아메리카科學大會에서 『밴즈』敎授의講演이導火線

(뉴욕特電) 뉴-욕에서開會中인『아메리카』科學大會에서『스미스』大學歷史敎授『두마반즈』氏가科學的見地로부터 神을否認하는講演을한것은 宗敎界에一大센세이슌을이르키고憤激한 宗敎界의名士들은言語道斷의詭辯이라고 뒤끌니어이러나서 神學界를爲하야辯駁하얏다는데 이러케詭辯을너르킨『반즈』敎授의主張은 近代科學의進步는 神學에致命傷을주고 神의存在立證을困難케하얏다 時代는宗敎의改革을要求한다 넷날에神에對한民族으로부터推戴된神에對한 時代에뒤떨어지는일면이라 新槪念』을가지지안흐면안된다는것이라는데『뉴욕』宗敎界中에도自由派에屬하는『홈스』博士가튼사람은이에共鳴하야宗敎의時代順應을主唱하고잇다한다

創作 먼동이틀때 (六)

崔曙海

하고 어롤어롤하면서도확실한 하숙도업시다니는것을남에게알리는것이퍽붓그러웟다

『네……오……저……이 윤변호사영집말슴이지요』

상조회란는말에그친구는벌서 모든것을알아채리는듯이대답하더니

『그래지금 어듸가시우벌일업스시우?』

하고허준이를되려다본다

『황금뎡에 댕겨가는길입니다 별일이 무슨별일이잇겟서요』

허준이는 심긔가 좀펴인듯슴을 지엇다

『밧부시지 안흐시면우리한잔 합시다 오래간만이니 그어간이야기도 듯고십고……』

그사람은

『어서 승락하고나를딸아오시오』

하는 눈으로 허준이를 보면서 도로 줄처서려고한다

『밧부기야‖밧부진 안습니다마는……』

허준이는 뒤ㅅ골을 흐리머리하여버렷다 그의발은 묵어우면서도 썰어졋다 자긔를률상하게보는듯한것이 고마운듯하면서도 불유쾌하고 그러케 딸아가먹는다는것이 쑥스럽기도하엿다 그러나 그처럼하는데 거절하기도 안되엇고 먹는다는힘에 쓸리지 안흘수도업섯다 원숭일 컴심은 들쌔로 아츰도변변이 못먹은장자에서는 꼴으륵꼴꼴 소리가는치지안헛다

『자 어서갑시다 볼일이벌로 업스신당에야…… 오래간만에이야기나 좀합시다』

그사람은 허준의 주저거리는 뜻을벌서 알어채린듯이 더욱친절하게 붓엇다

두사람은 종로로나왓다 흐리ㅅ한일긔는 석양이되면서 더욱 흐리ㅅ하여서 모든것은 어둑단 황혼ㅅ속에 잠긴것가타엿다 활수로는 느진봄이나 아직도 일긔는산산한데 날이흐리고 석양ㅅ바람이 일어나니 일은봄처럼 쌀쌀하엿다

두사람은 부러오는바람에 몰려오는 몬지를피하야 머리를돌리면서 종로큰길을 건너섯다 큰길을 건너서서 몃집지나다가 어느조고마한 중국료리뎜으로 들어갓다

검은문ㅅ장을 느린커텐으로 흘너나오는 기름냄새와 무엇을 지지는지 쐬르륵쐬르르하는 소리는 허준의비위를 슬근이건드리엇다

두사람은 깁숙하고 조용한온슬ㅅ방으로 인도되엇다

『우리가못맛난지 퍽오래지요?』

식탁을 가운데노코 마조안저서 담배를피이는 두사람ㅅ사이에는 이야기가 버려지엇다

『퍽되지오……』

하고허준이는손가락을꼽드니

『팔년인데…… 관호씨가서권(善勝)에 입학하신뒤부터 이니外……』

하고 담배를 떼엇다 그의어조라거나래도는 김처럼 마음을진노흔것갓지못하고 조심 조심하여 저편의눈치만 살피는 듯이― 어쐬보면 저편의 긔분에압박을늣기는듯이 어색한것이 만히보이는것을 그 스스로도 늣기고야 말엇다 그것을늣기고 몸가짐을 평범이하려고힘사록더욱부자연하여지는것가타엿다

『참그러쿤…… 그때만 해두지금보다는 철업는때외다』

하고빙그레웃으며담배쇠레서 소스는 파란연긔를 보는관호의 가느다란 눈은 넷날의그림자를 보는듯하엿다

『그런데 그새어듸게섯소?그해하긔방학에 내려가니까 그때댁에서들은 어듸인지 이사를하섯드군요!』

그는다시 허준에게시선을 주엇다

二等當選小說 自己의길 (五)

田春湖

三

밤중의 촌거리는 고요하엿다 집집에서흘러나오는불빗이히미하게길우에 빗치엿스나 거긔에는불의의침입자를발견한개들은 소리를갓치하야짓가시작하엿다 옷업시쓸쓸한거리 짓는 개들의소리 이모든것은 동일에게불안과적막함만을 늣기게 하엿다 만일그의마음에 그다지 울렁거리지안엇드면 그는아마 자긔의 살든곳 아니그보다는 광주의집부터가보앗스리라 할수업시 그는장변에서 멀지안은 넷날에그중친에게 지내든 영호(永浩)의 집으로차저갓다

오년만에맛나는 두사람은 깃벗다 그러나동일은영호의얼골을 보고놀래지안흘수가업섯다감옥에서나온 자긔보나도 수척한그의얼골을볼때 명상할수업는 동정의눈물이흘럿다

그러나두사람은즐겁게짓거리엇다 그들만은 넷날과다름이업섯다지나간때의 고생을 즐겁게 니야기하엿다 그러나 동일의어머니의죽음을 이야기할때 두사람은울지안흘수업섯다 마지막숨이너머가는 순간까지『동일아 동일아』 하고부르든란말을들을때의동일은새로운눈물을먹음엇다

『그만두게 다지나간일을지금 되푸리하면무엇하나!』

동일은 나오는셜음을 참고저하야이러케말하엿다 참을뿐만안니라 사실그가이곳을 차저온까닭은울고저함이아니요새로운희망새깃븜을 찻고저함이엇다

그러나그는 광주의말을 들어볼수가업섯다 가장알고 십흔일이가까닭에 용이히입이 버러지지안엇다 무엇이라고 말을시작할는지알수업섯다

『아참ㅂ는엇더케 되엿나?자금누엇을하고잇나?』

이편말을동일은물엇다

『ㅂ?순사단인다네 아마작년부터단닌다지』

『순사?엇재순사를단니나?』

『순사도 곱게단니면상관잇겟나만은 허자식이여간 못되지를안어서일권에M자네M알지?』

『옹알고말고참M은무엇하나』

『무엇하긴 무엇해자긔집에먹을것이잇스니가 놀고먹지 그러나야학회를위해서는대단한일심이라네 모든경비를 혼자담당하야지금학생이 한오십명이나 된다네』

라듸오 十二日放送 로그람

午前一〇、三〇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 ▲一一、〇〇料理製法日用品時勢 午後〇、三〇復習時間▲三、四五ニユ-ス▲六、〇〇童話測口良光 ▲六、三〇通動講座猶餘司 ▲七、〇〇錦心流琵琶松居淸水柳家語樂▲여러스쌘드數曲救世軍プラスバンド指揮c、W、ツイツドソン▲八、二〇ニユ-ス▲八、三〇西道雜歌와京城座唱의夕白牧丹李映山紅李錦玉李眞鳳 九、三〇時報、氣象槪況、翌日順序發表

謹賀新年

天安郡成歡面安宮里 權信采 喪中欠禮

振威郡安仲市場 司法代書人 李榮緖

京釜線平澤驛前 綿絲布木貿易商 金烱哲

平澤驛前 歐米式洋服調進 友助洋服店 主 金永柱

京畿道平澤 司法代書人 金永柱

平澤 朴炳奭

京釜線平澤 金銀品 고무靴商 李禹善

京畿道平澤 平和醫院 公醫 金炳龍 電話一二番

振威郡古德面宮里 崔容和

振威郡古德面杜陵里 金榮相

振威郡西面大沙里 張斗鎬

天安郡成歡面兩舍里 李孝性

振威郡梧城面安仲市 綢緞布木 和洋雜貨 肥料小米 構寸陶器 販賣貿易 三井商會 主 崔榮憲

京釜線平澤驛前 日華洋服店 主 許均

京釜線平澤 金銀品 고무靴 朴鳳鎭商店

京釜線平澤市場 麥素砂糖 麵粉菓子 安永順商店

京釜線平澤 米雜穀貿易商 韓昌敎

京畿道平澤 朝鮮衡平社 平澤支部

振威郡靑北面玄谷里 藥局 全殷相

振威郡靑北面閑山里 二乙釀造所 金華植

振威郡玄德面雲井里 李康憲

京畿道平澤 平澤醫院 公醫 崔鍾完 電話二十番

振威郡古德面杜陵里 安在鳳

茂朱郡邑內 公醫 金奎祿

茂朱金融組合 理事 稗田治平

茂朱公立普通學校 校長 黑川漸

茂朱大學林出張所 所長 渡部義郎

茂朱郡邑內 佛敎布敎堂

茂朱郡廳 職員一同

茂朱警察署 署員一同

茂朱郡邑內 崔南基

茂朱館主 山中又治郎

茂朱郡邑內 煙草營業所 山村喜代藏

茂朱郡邑內學校組合 管理人 山本百之助

茂朱邑內 米穀商貨物 自動車部 朴雲學 吳在根

茂朱郡邑內 吳盛根

茂朱郡邑內 自動車部 李鍾鉉

茂朱郵便所 濱井誠

茂朱販引所 商店

茂朱郡邑內 古舘庄作

茂朱郡邑內 陳壽鎬

茂朱郡邑內 雜貨商 伊藤鐵治郎

茂朱郡邑內 金容鶴 金東燮

赤裳面斜山里 崔總善

赤裳面三柳里 柳培鉉

赤裳面三柳里 柳東烈

赤裳面三柳里 柳潭烈

赤裳面三柳里 柳煥烈

開城北本町 金鍾勳

開城東本町 李熙英

金川郡市邊里 德濟醫院醫師 趙漢英

金川郡外柳面文修里 朴基洌

金川郡金川面 職員一同

開城池町 開興人蔘商會

興德郵便所 所長 淺野喜八郎

高敞邑內 司法代書人 金在炫

心元面釀造場 李明來 李容彫

栗山浦 全寅國

羅州郡驛前 司法代書人 崔純熙

羅州郡茶道面 職員一同

羅州郡多侍面東谷里 崔永文

鳳凰普校 金錫春 李元仲 全弼琓

羅州郡廣信精米所 白南善 電話六九番

羅州邑內 精米製粟造 朴鳳德 電話六四番

羅州榮山浦 共同自動車部 坂本梁

羅州郡鳳凰面 職員一同

羅州郡平洞水利組合 張甲明 金鐘寬

羅州郡山浦面 面長 韓百彦 書記一同

天安郡東面職員
尹尹李李尹李趙
廷冠星誼在元晃
漢錫主組格機鎬

天安郡廣德面職員
李朴趙桑宋金池尹
哲濟昌成永命鎬秉泰
求璨來浩達玉鶴元璇

天安邑 天安郵便局 職員一同

天安郡豊歲市 李彭石

天安郡東面東山里酒造所 吳興燮

天安邑 布木商 李準相

振威郡玄德面雲井里 李瑾憲

振威郡玄德面雲井里 李敏膺

振威郡浦升面晩湖里 趙吉九

京釜線西井里驛前 文房具商 李相己

振威郡梧城面宿城里 金台淵

鐵原邑內 辯護士 高運河

會寧郡守 奧村信吉 庶務主任 植松赳 財務主任 蘇我良彦

會寧大正通 製造販賣 참-기름、동배기름、들깨기름、피마자기름 崔壽元商店

會寧 中華料理 會芳春 電話一七九番

會寧南門外 食料品 丸屋商店 (電話二五二番)

鎭川郡萬升面廣惠院 崔秉崇

鎭川郡廣惠院 清香釀酒場

鎭川郡廣惠院 洪淳玉

鎭川郡萬升面廣惠院 姜德萬

陰城郡大所面大金里 李喜遠

鎭川郡廣惠院 李漢浩

鎭川郡萬升面廣惠院 徐相明

鎭川郡萬升面廣惠院 吳殷泳

鎭南浦碑石里 眞溫自働車商會 鎭南浦支部 電話五〇一番 營業線路 鎭南浦發龍岡邑經由溫井里行

沃溝開井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平南眞池洞驛前 眞溫自働車商會 金豐漢 營業線路 …〇〇〇… 眞池洞驛發龍岡邑經由溫井里間 鎭南浦發龍岡邑經由溫井里間

全北沃溝郡瑞穗面瑞穗里 鄭一謨

全北臨陂 曹秉駿

全北沃溝郡臨陂面月下里 高錫注

全北臨陂驛前 金炳洙

長城郡長城面鈴泉里八三 長城麴子株式會社 社長 柳寅秀 專務取締役 金奎汶 取締役 羅在春 取締役 羅正叔 監査役

鐵原邑內 高重權

鐵原邑內廣成商會 主 金昶培

鐵原邑內 李鏞彝

月井驛前 李潤琪

鐵原邑內 李世潤

鐵原郡於雲面中江里區長 黃潤老

和洋雜貨 元尙吉商店

會寧本町通 司法代書人 吳基錫

會寧 驛長 佐佐木敬三郎

會寧大正通 綢緞布木 冷麵商 金寬河 電話二六一番

1929

本年度滿粟의需給과 朝鮮內米粟消費

昨年中에一千七百二十六萬餘石

昨年度滿洲粟의作況을見하면南北滿洲共히平年作以上으로豫想되는데其輸出餘力은約三百萬石이라고稱하는바滿洲粟은大衆伸縮性을有하야此代用食되는高粱小麥等의時勢關係와朝鮮에서의需要如何로此以上의輸出餘力을求한은決코至難한狀況은아니나다하야此需要地되는朝鮮의狀態를觀하면本年朝鮮粟의產額은昨年에比하야約三十二萬石의減收를豫想하지마는大局에는影響이업슬것이요一方으로朝鮮米는此에反하야前年보다約三百八十萬石의減收를豫想하는結果昨年同樣으로朝鮮米日本移出은期待가不能하나本年度有米가意外로多量되는點과凶年에對한消費節約等을考慮하는時는或은六百萬石以上의移出도困難하지안흘樣으로觀測되어此結果代用食으로四百萬石假量의粟及外米輸入을必要로할터인바日本의外米輸入制限令은今一個年間延期할事로되어朝鮮도此影響을受하야昨年의輸入高約五十萬石을超過하기는困難하다고觀하는一便滿洲粟은兩年은朝鮮米의豐作과米價低落으로意外로輸入이尠少하얏스나昨年은全朝鮮的凶歉과粟의主要消費地되는咸南北地方의水害等周圍의事情이過히相違되기때문에二百五十萬石乃至三百萬石程度의輸入을豫想하기에難치안타하며左에朝鮮에外米及粟의需給을示하면(單位千石)

品名	昭和元年	同二年	同三年
鮮米	一四、七三三	一五、三〇〇	一七、二九八
鮮粟	四、七六六	四、七七七	四、九六四
外米輸移入	八〇七	九三三	四六九
滿粟輸移入	二、一六四	二、六四八	一、九〇四
鮮米移輸出	五、四二八	六、一七九	七、四三〇
差引消費高	一七、〇六三	一七、四五一	一七、二六六

東拓本年度 代行豫想

測量設計三萬六千町步 工事監督九千六十町步

東拓土地改良部에서는아즉도關係水利組合側과의折衝未了하기때문에本年內의代行業績을豫想하기는困難하다하나이미確定的인것만으로摘出하야도測量設計契約五組合三萬六千二百町步工事監督契約九組合九千六十町步에達할모양이라는데內容은如左하다더라

◇測量設計
昭和水利 二六、〇〇〇町步
於之屯水利 六、〇〇〇
龜城水利(南市) 二、〇〇〇
朱南水利 一、七〇〇
山峰水利 五〇〇
計 三六、二〇〇

◇工事監督
南山水利 約一、三〇〇
松汀水利 一、三〇〇
栗野水利 三、五〇〇
長陽水利 五〇〇
林川水利 六七〇
世道水利 四七〇
洑山水利 五四〇
陳山水利 二三〇
東海水利 五五〇
計 九、〇六〇

災害救濟計劃

事業費總額三百萬圓

昨年의旱水被害地에對한總督府의救濟事業은鐵道土地改良或은砂防工事等旣定事業의繰幹施行을하는同時에緊急을要하는것에對하야는第二豫備金國庫剩餘金의支出과並히追加豫算에計上하야實行을期할터이나旣定事業의繰幹에依하는以外의事業計劃은關係各局部가어려운財政으로부터最善을다하야左와如히決定하얏다더라

旱害救濟事業
總額百四萬九千二百六十三圓中土木費六十六萬七千七十七圓內의今年度第二豫備金支出決定額은四十一萬九千二百八十圓으로
▲京畿道 道路二萬四千九百九十圓
▲全羅北道 道路七萬一千二百十五圓(紋山川、烏山川、安城川、遠川中補修)八十四圓
▲慶尙北道 道路十九萬一千二十九圓
▲黃海道 道路五萬九百八十圓 河川二萬一千四百六十二圓
의新設과並히改修에對한補助를함에는殘額二十四萬七千七百九十七圓은이를來年度追加豫算에計上하고그確定을기다려獸寧江羅津浦川等의直轄河川과並히地方河川의補修를行하야更히各道種穀無償給與에對한國庫補助二十萬三千百八十六圓은二年度剩餘金으로부터副業獎勵補助第二豫備金七萬九千圓、今年度第二豫備金……

水害救濟事業
土木費總額은百七十九萬圓으로그中四十三萬三千圓(內監督費七千六百圓을包含함)은第二次豫備金支出로決定하고
▲咸鏡南道 道路二十五萬七千四百圓 河川四萬八千圓
▲咸鏡北道 道路 十二萬圓
을交附하야鴨綠江成川江等의氾濫河川乃至交通復舊에對한應急의措置를講究하기로하얏스나殘額百三十五萬七千圓은이를來年度追加豫算에計上하야

咸鏡南道 (圓)
元山會寧線 五四、三九〇
義州惠山線 三五、九〇〇
咸興黃水線 五五、一〇〇
同 慈城線 七四、一五〇
同西湖津線 二五、八〇〇
北靑甲山線 一一三、〇八〇
計 三三五、二〇〇

咸鏡北道
羅南淸津線 一九、〇〇〇
 一五、〇〇〇
會寧行營線 三、〇〇〇
輸城慶興線 一二、〇〇〇
茂山淸津線 九、一三〇
慶源鍾城線 六九、四二〇
茂山陵興線 二一、〇〇〇
雄基穩城線 二、五〇〇
 二六、〇〇〇
計 一七七、六〇〇

全羅南道
全州麗水線 二九、〇〇〇
公州順天線 五五、〇〇〇
計 八四、〇〇〇

平安北道
新安州咸興線 五六、〇〇〇
安州義州線 一六、二〇〇
安州富山洞線 一九、八〇〇
平中里雲山線 九、二〇〇
定州朔州線 一九、二〇〇
計 七〇、〇〇〇

平安南道
平壤元山線 一六、〇〇〇
新安州咸興線 一二、〇〇〇
平壤寧遠間 一五、〇〇〇
計 四三、〇〇〇

의國有一二等道路의被害復舊를함과同時에
平安北道(渭原前川線地方三等道路補修) 六〇、〇〇〇
의國庫補助를하고更히直轄及地方河川에對한治水費로
咸鏡北道
輸城川 四五、〇〇〇
咸鏡南道
城川江 二四五、〇〇〇
西大川 七〇、〇〇〇
北靑南大川 四〇、〇〇〇
其他雜河川 三〇、〇〇〇
을計上하야改補修完成을하기로하얏다

그리고被害水利組合並히被害地에對한土地改良關係의救濟費는十萬圓으로施行區域은未定이나結局水害救濟는百八十九萬圓이나될것으로보아서總督府의災害事業費總額은二百九十三萬九千二百六十三圓이되고內第二豫備金과國庫剩餘金의支出百二十三萬四千四百六十六圓殘額百七十萬四千七百九十七圓이來年度追加……

南原社會團體 聯合懇談會

十四日에開催

去年一年間모든運動의總收穫을決算報告하며今後運動方針에對한計策을樹立코저南原靑年同盟主催로各社會團體聯合懇談會를左記와如히開催한다는바會員은勿論이려니와多數有志의參席이잇기를바란다더라(南原)
時日 一月十四日
會費 五十錢
申請場所 南原靑年同盟會館

甕津新幹支會

三回定期大會

新幹會甕津支會에서는去十二月二十八日下午七時半부터桃源邊村靑年會館內에서崔炳祚氏司會下에第三回定期大會를開하엿는데當初集會屆를提出할時에討議事項과會順을보여달라함으로보여주엇든바여러가지로質問한끝에會順中에其他事項만은빼여달라고하얏으로할수업시其他事項은省略하고그後의討議事項을遂行中臨席警官으로부터모든決議는可及的法規에抵觸되지안는程度로하여달라는注意가잇섯다는바決議事項과改選된任員은左와如하다더라(甕津)

◇決議
一、本部大會建議案
(가)機關紙發行의件
(나)組織體變更의件
(다)在外同胞生活狀態調査의件
(라)三總解禁運動을全朝鮮各支會에指令하야全國的運動을開始할것
一、自體運動에關한件
一、靑年運動에關한件
一、農民運動에關한件
一、勞働運動에關한件
一、少年運動에關한件
一、幼稚園設立期成會發起의件
一、消費組合設起의件
一、風俗改良의件
一、郡內狀況調査表作成의件
一、代表會員選定의件

◇任員
支會長李秉哲 副會長崔炳祚 庶務部總務幹事崔衡楠 同常務幹事金俊傑 政治文化部總務幹事朴明普 同常務幹事金鮮傑 財政部總務幹事張吉鉤 調査研究部總務幹事韓有羅 同常務幹事李石泉 宣傳部總務幹事朴澤淳 同常務幹事吳孝俊 同幹事韓澤敏

基金一萬圓計劃의 幼稚園促成會

順川有志들이組織 爲先基本金三千圓積立

累年順川人士의宿望이든順川幼稚園을促成시키기爲하야지난一月八日에有志二十餘名이平壤館에會集하야李富信氏의意味深長한禮辭와三千圓의基本金이積立되어잇다는말이끗난뒤에幼稚園期成會組織問題에對하야萬圓의基本金이積立된後에期成會의看板을發表하자느냐或不然이면爲先期成會를具體的으로組織하고그機械下에서幼稚園期成을貫徹하자느냐하는問題로緊張한場內에자못議論이紛紛하엿다하며結局은萬圓의基本金이積立된後에期成會를組織하기로하고먼저幼稚園促成會를組織하고左記와如한決議를하엿다더라(順川)

◇決議事項
一、順川幼稚園創立을促成할일
一、執行委員一人을選定하야一切準備事務를執行케할일
◇執行委員＝李富信

負債淸帳코저 素人劇興行

安城靑年會에서

安城邑內安城靑年會에서는同會에서經營하는安靑學院의負債六百餘圓을淸帳할길이업서去三四兩日間同會館에서素人劇을興行하고一般의同情을求하엿섯는데連日滿員의盛況을일우엇스며有志諸氏의義捐된金額이二百餘圓에達한다더라(安城)

穩靑石水支部

二回定期大會

지난五日上午十時에石水洞振興書塾講堂에서議長朴基南君의司會로開會를宣言하고各部의報告를마친後委員改選及討議事項等을無事히終了하고同午後四時頃에拍手로閉會하엿는데決議事項과新任委員은如左하다더라(穩城)

◇決議事項
一、本部大會代議員選定의件
一、建議案作成의件、一、敎養問題一、班組織의件一、迷信打破의件一、早婚廢止의件一、會館建築件一、義務金徵收件一、豫算編成의件一、旣成團體撲滅의件
◇新任委員＝委員長崔基南 庶務財政部全鎣一 崔昌運 文化宣傳部崔內玉 崔昌德 體育部崔明錫 申英 少年部崔錫柱 崔長山

金堤少年同盟

第一回委員會

朝鮮少年總聯盟金堤少年同盟에서는第一回委員會를지난一月七日午後四時金堤驛前金堤合同勞働組合會館에서開催하고委員長郭福山君의司會下에左記事項을討議하엿다더라(金堤)

◇討議案
一、第二年第一回臨時大會召集의件
(가)時日一月二十日午後一時
(나)場所金堤驛前金堤合同勞働組合會館
一、大會準備委員選定의件
◇委員 郭福山 具泰桓 李錫合 金錫瓊 朴斗彥

溫陽溫泉市民 交通完成促進을

道當局에陳情

忠南牙山郡溫陽溫泉市民三十餘名은連署捺印하야道當局이無誠意하다는理由로去十二月二十七日에忠淸南道廳과牙山郡廳에陳情書를提出하엿다는데前記陳情書를提出한內容을들은즉溫陽溫泉은날로發展되어物產의集散은勿論이오交通의便利를圖謀할것이必要함도不拘하고關係가장密接한溫泉과道廳所在地인公州間交通이不便함으로直通道路인溫泉으로부터維鳩를經由하야公州間道路를開鑿或은修繕키爲하야牙山郡守와公州郡守가가장難關인公州「차령재」上에會合하야直通道路의起工을着手하기로協議하고即時測量外지完了하엿스나于今何等의處理가업슴으로當局의無誠意함을非難하는同時그와가티陳情書를提出하고前記直通의促成을바라는同時에一般은當局의處理를注視中이라하며前記陳情委員은李奎秋氏外三十五名이라더라(牙山)

明年度豫算에計上된 三港灣修築計劃 (二)

總經費四百五十萬圓

海陸連絡施設로棧橋架設과船渠埋立

二、鎭南浦港海陸連絡設備擴張工事

鎭南浦港은西鮮에잇서서海陸物資의集散地로貿易上에서重要한港灣이나潮位干滿의差가甚하고(朔望平均五米六)貨物의積卸에不便이不少함으로統監府는概算工費五百四十四萬圓으로써修船渠修築의計劃을세우고爲先百十四萬圓의豫算을決定하야明治三十九年工事에着手하얏는데倂合後財政의關係上이를縮少하야施行하기가困難함으로四十五年六月에船渠의計劃을變更하야繫船岸壁二百五十四米를築造하야二千噸級의汽船二隻을繫留할수잇는設備로大正四年三月에完成하얏다여긔에要한經費는百四十四萬三千餘圓이엇다그러나本港의貿易은其後急速한發展을遂하야大正七年에는貨物六十九萬千餘噸價額四千六百八十二萬四千餘圓이엇스나昭和二年에至하야는貨物百三十一萬七千餘噸價額五千八百六十七萬五千餘圓이되고貨物은約二倍가激增하얏다그리하야繫留岸壁의利用狀況을보면昭和二年貨物總噸量百三十一萬七千餘噸中에岸壁荷役四十四萬二千餘噸을보이고米當千七百四十噸에達하얏다

此를過去의實積에比하면大正十二年(貨物十七萬噸米當六百七十噸)外지는普通荷役能力(岸壁荷役能力은一個年八百噸程度를普通으로한)에對하야大略平衡을保持하얏스나同十三年에는二十九萬三千餘噸米當千百五十噸에又昭和二年에至하야는四十四萬二千餘噸米當千七百四十噸으로激增하야지금에는岸壁利用이其極에達하얏다이로因하야停船時間의浪費商取引의遲延等貿易經濟上에미치는不利는甚大할것이다그리고요사이大同、載寧兩江岸의水利事業의勃興及平壤附近의工業의發展과를기다려本港의貿易에顯著한發達을볼수잇는것은自然의勢인데이에對하야相當한施設을하는것은焦眉의急務로認定하고本港에將來의出入貨物及岸壁利用貨物의增加를豫想하건대大正七年을基準으로하야昭和二年에至하는十個年間의貨物增加率은年九分이나將來는六分五厘乃至五分五厘의增加率을推定하야昭和二年의貨物百三十一萬七千餘噸에對하야

一、五年後(此五個年間의增加率六分五厘)百八十萬四千噸
二、十年後(此五個年間의增加率五分五厘)二百三十五萬噸

에達하겟고……現在岸壁利用의比例는……將來의岸壁利用貨物은……現在의岸壁設備를合하야……岸壁荷役을할수잇는程度로擴張할必要가잇슴을認定하고이에要하는總工費三百四十二萬圓을計上하고四個年繼續事業으로施行키로하얏다

◇訂正 本報一月十一日付發行第四面記事中「今後에天道教」라는論文中第四段第十四行부터末行外지는他記事가錯版의錯誤로混入된것이오며其以上全文第三面分은一月十日付發行第四面同題二面分第二段第六行부터入할것이기로讀者와筆者에게未安함을謝함이압기에訂正함

幼年申報支社 農村問題講演

平南龍岡郡多美面芝沙洞里에잇는幼年申報支社에서는每年農閑期를利用하야一般農民에게農村啓蒙에對한思想을普及식히고자하야新年初頭에서도亦是例年에依하야講士를招聘하야講演會를開催하려고本月十二日午後六時부터當地禮拜堂內에서農村啓蒙과敎育思想及이에基督敎에對한講演會를開催하리라는데附近人士는多數來參하기를바란다더라(鎭南浦)

煙草價五錢貯蓄이 六萬圓巨金되어

黃州興業組合의好成績 앞으로十年間繼續決定

黃州郡邑內에잇는興業組合은距今十年前에黃州有志靑年八十餘名이黃州興業組合을組織하고每日消費하는煙草代로一日五錢式貯蓄하기로하고組合員은每月出資하기에困難함을생각지안코出資하기를十年間繼續한바달이가고해가감을따라事業成績이良好할뿐아니라組合員一同은더욱더욱奮勵한結果昭和三年十二月末外지의貯蓄財產總額이六萬圓에達하엿는데今番即昨年末外지가組合의存立期日로一時解散說이잇섯든바一部組合員側에서는最初目的한바가今日에至하야巨大한金額에達하얏스며더욱이黃州社會에唯一한金融機關이되어잇슴을不拘하고解散함은千萬不當하다고主張하엿슴으로本月七日에定期總會를開催하고決算報告等이잇슨後에一般組合員은規約上存立期가滿了되엇스나形式上解散하는것으로하고更히總資產六萬圓으로써十年間事業을繼續하기로하고規約을通過하고役員을選擧하엿스며또한興業組合의解散時에는積立金全部를黃州敎育機關에寄附하기로하얏다는데一日五錢式貯蓄한金額이六萬圓이라는巨資를일우게된組合은朝鮮內에서처음보리라하며今番當選된役員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黃州)

一、組合長＝金成鏞 副組合長林益根 常務理事金禮植 姜齊植 理事金鐵植 吳鐵瑞 監査李泰根 洪性昌 評議員李德松 金錫珍 金順吉

米院少年會定總

去五日午後七時부터忠北淸州郡米院少年會에서는同會臨時會館內에서第四回定期總會가開催되엇는데申亨植君의司會로各種事項을決議하고任員改選도잇섯는데被選된職員氏名은如左하다더라(米院)
△會長申亨植△副會長金中玉△總務李得雨△會計金明洙△審北申貞植 李永徹△敎養部幹事金明秀 金相吉 金鳳彥△調査部幹事李得雨 申貞植

一週年紀念式

去七日午後八時부터同會館에集合하야米院少年會創立一週紀念式을擧行하엿는데申亨植君의司會로開會를宣한後來賓中으로當地山東靑年會執行委員長李鍾元氏의祝辭가잇섯고即席에서紀念討論會가開催되엇다는데其討題는如左하다더라(米院)
一、討論題目
農村少年의成功이物質이냐?精神이냐?
物質 李永徹 金明秀
精神 申貞植 金中玉

海州社會團體 聯合懇親盛況

지난七日에

新幹會海州支會主催의海州社會團體聯合懇親會가四日에開催되리라함은新幹海州支會의定期大會의消息과함께旣報한바잇거니와其間主催側의事情上豫定보다延하야去七日下午八時에當地山東居一館樓上에서支會長金鍾鎭氏의司會로開會케되엇는바順序에依하야各參加團體의紹介가잇슨後新年所感과餘興으로써同十時에閉會되엇는바當日參加團體는五個團體에人員은四十餘에達하야實로意外의盛況을呈하엿다더라(海州)

鳥人金東業君

歡迎會大盛況

慶北安東郡出生인金東業君이일즉東京에건너가四個星霜을苦學하야三等飛行士의免許狀을受하고還鄕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지난五日에市內金仙花家에서歡迎會를開催하엿다는데安東에잇는各階級을網羅하야五十餘名이모혀서金君의快活한性格과非常한技能을稱讚하며將來의成功을祝福하고오래도록餘興에취하여歡迎會는盛況으로맛치엿스며來十日에는또다시東京으로건너가二等飛行士試驗을마치고今秋頃에는鄕土訪問飛行을豫期한다더라(安東)

蔚山功勞者 金正國氏長逝

一般이哀悼

蔚山郡蔚山面城南洞金正國氏는光武七八年부터鎖國의氣分이充滿한蔚山에서는第一先覺者로서일즉鮮人도睡夢을覺醒하야速히開明의길로나아가야한다고市場其他群衆이잇는곳마다차자다니며熱烈한演說을試하며東奔西走하엿슴은一般이共認하는바로서光武九年에는私立開進學校를創立하고隆熙三年에는蔚山公立普通學校學事獎勵委員으로其後로今日에至하기外지校務에盡力한共公의事業이라하면氏의功勞가업는바가업다고하는바그런데偶然이重病으로去七日五十一歲를最後期로逝去하엿슴으로一般郡民은哀悼를不已한다더라(蔚山)

社會同情與否에달린 長城巽龍校運命

後援會의盡力으로 艱辛히維持햇스나 今後繼續이難問題

全南長城郡北下面大岳里私立巽龍學校는距今九年前에同里有志姜萬會氏의發起로附近洞有財產을同校財產으로編入하는同時에設立하고私立普通學校認可까지마터서以來만흔英才를敎養하며氏는家事外지도忘却하고校舍를建築한다學校를經營한다하야東奔西走하다가氏의經濟가貧弱하여지며元來北下面內全部가磽薄한耕作으로僅僅히糊口하야오든것을突然히導貸局이라는것이생겨나며부터本面에서膏夫觸慶이나부터는學校의經費辦出이困難한데다가兼하야生活困難으로因한退學生이續出하니設立者姜萬會氏는束手無策하야同面長金仁洙氏에게哀訴하엿든바氏는全郡을通하야單純한우리의손으로設立된學校는巽龍學校한개가存在할뿐인데그대로放置할수업다決心하고附近里民을集合하야勸誘한結果昭和二年九月七日에巽龍學校後援會를創設하고學校를維持하여오든바……會員들은自身의糊口가어려워하는中에子女의敎育費가……(長城)

◇同校後援會現幹部
會長金仁洙 副會長崔晃俊外幹事八人 評議員五人 會計一人

蔚山自動車 慘事重疊

一人은墜死 二人은重傷

蔚山自動車組合自動車(番號五二八番)가去六日午後四時頃釜山서蔚山으로오는길에梁山郡西倉附近에서氏名未詳한사람一名이自動車에서轢落하야即死하엿다는바運轉手朴邦佑는一月八日梁山警察署로拘引되엇다더라(蔚山)

蔚山自動車組合運轉手許文龍은蔚山서一月八日午後一時半에出發하야釜山으로向하는途中大峴附近에서自動車가破損되엇다는데乘客中老婆一人과男兒一人이重傷을當하엿다더라(蔚山)

利原鹽盆夜學

李永鎭氏熱誠

咸南利原郡南面鹽盆里에잇는新學校敎師李永鎭氏는里內濟村婦女子의文盲을打破하기爲하야同校內에서單獨으로三時間式敎授한다는데講習生은二十餘名이라하며程度는二、三學年인데期間은去十一月부터來四月外지라더라(利原)

新昌勞組 講座盛況◇

지난一月六日下午七時半부터咸南新昌勞働組合主催로講座會를同組合講堂內에開催하엿다는데講師는靑盟新昌支部의宋昌院宋瓚翼氏이엇스며場內는同組合員으로大滿員이엇다더라(新昌)
◇講座科目
勞働運動의起源 宋昌城
現文明의解剖 宋瓚翼

會寧天道教 講演會準備

天道教會寧宗理院에서는講師李敦化先生을京城으로부터請邀하야本月十三日부터當地靑年同盟會館에서낫에는天道教人에게만限하야講道하고밤에는一般社會人士에게外지限하야講演을한다는바近方人士의多數聽講하기를바란다더라(會寧)

利原郡民大會 來十五日開催

咸南利原郡에서는去五日에利原郡民大會를開催할必要가有하야……決議事項은新幹會分面運動과其他諸事項이라는데大會日은來十五日正午라더라(利原)

地方短信

平壤

◇朴道議辭任＝平壤府鄉里官選道評議員朴經錫氏는지난七日辭任願을平南知事에게提出하얏는데現在道評議員外에中樞院參議、平壤商業會議所副會頭等의公職을가지고잇슴으로道評議員은辭任을하는것이라고

◇又復火災二件＝지난七日午前五時四十五分平壤水玉里菓子製造店田有樺方에서는菓子製造하든가마(釜)에서불이닐어나消防隊의活動으로約一時間後에鎭火되엇는데損害는約二十圓이라하며同日午前十一時五十五分同里李應燮方에서도불이닐어나一時騷動하얏스나即時鎭火되엇는데新年에入하야平壤의火災件數는此二件을合하야벌서五件이되엇다고

◇僞醫生의賂物＝平壤市外東大院里賣藥營業李啓勳은免許도업시醫生行爲를하든터인데處罰을두려워平壤署大同派出所巡査에게白米一斗를賂呈하얏섯든바白米一斗는同巡査로부터返還이되고李啓勳은지난七日平壤署에召喚되어取調를當하는中이라고

◇家出한妻의搜索願＝博川郡博川面南湖洞金錫俊의妻吳永嬅(一九)는昨年十月十九日無斷히出家하얏고黃州郡仁橋面金姓女(二六)는지난十一月二日午前九時頃衣服數點을携帶하고中和郡看東市에居住하는黃甫淳(二七)이와어데로인지携手逃走하얏다고各各그本夫로부터지난七日平壤署에搜索願을提出하얏다고

◇平元線工事落札＝平元線西部第七、第八工區工事入札은지난七日午前十時에執行하얏는데七區는四十二萬六千圓에有馬組에게落札되고第八區는九十六萬三千七百圓에長門組에게落札되얏다고

◇荷物車轢兒＝大同郡栗里面將泉里金基鎬(二九)는지난五日午後二時頃荷車에쌀을실고平壤으로나려가다가平壤倉田里宋在權의三男宋義權(一〇)을치엿는데即時普和醫院으로다리고가서應急治療를한바生命에는別關係업스리라고

◇成川郡의强盜＝十二月三十一日새벽平南成川郡靈泉面崗洞朴氏(五三)의집에强盜가侵入하엿스나前記朴氏가발악을하기때문에强盜는아모所得도업시逃走하얏는데그强盜는同里居住白某(二三)의所爲로判明되어지난六日成川署에逮捕되얏다고

◇花柳界의好景氣＝新年이되어平壤花柳界는大繁昌을極한다는데一日부터三日外지三日間의收入은如左하다고
日本娼妓(平壤券番) 三千六百二圓
朝鮮妓生(箕城券番) 二千五百二圓
朝鮮娼妓 一千二百五十四圓 一圓五十錢
日本娼妓 三千八百八十七圓 十七錢
計 一萬一千二百四十四圓六十……

◇少年竊盜團＝지난六日午後二時平壤大同橋下에서少年竊盜團朴中益(三七)外八名이白州、메리야스、목도리等贓品을山가티쌓아노코한창分配하든中에巡査에게發覺되어一網打盡되엇는데그少年들은全部十六七歲의兒童들로그中二名을除하고는全部他道로부터流轉하야온者이며昨年十一月二十日부터二十餘回의竊盜를行한바被害額도相當한巨額이되리라고

博川

◇風下農民夜學＝平北博川郡博川面風下洞에서는洞農民社主催로따로히夜學을開催하고男女共學을한다는바現時男子가二十六人이요女子十六人이라하며講師는宋方道宋文燮兩君이라고

◇賣酒小使의暴行＝平北博川署에잇는小使李根煥이란者는當地南部洞에잇는賣酒女崔明善이를지난五日下午五時頃에街路에서끄러내여無數亂打하는同時에이날은따춤博川市日인지라구경군이산가티모엿는데同署에勤務하는白巡查가小使의無理한反抗에로愛俐우고怒氣가大發하야小使를無數히따리다가結局警察署로引致하엿다는데前記小使가崔明善이란賣酒女를때린原因은아주大수롭지안흔일에단순한暴行을加하엿슴이라고

◇天道教部領會＝博川天道教宗理院에서는지난六日下午三時頃에同院內에서部領會를開하고同院維持會를部領間에分擔하여가지고各自己部員에게募集할事를討議하엿다고

◇天道布德師會＝平北博川天道教布德師等은지난六日下午二時同院內에서會를開하고學校合設이던것을各分立할事를決議하엿다고

地方評壇

米院

近日忠北山東某酒造所와僞酒客들과사이에不平이적어도日中問題만치나複雜하게잇는模樣
◇그런데不公平을엄하는親구는모다『面所나리』『駐在所나리』를번그둘어보니새술이나면술을두가지로맨들어조흔술은郡職員出張時나될야檢査나맛치고나즌술은一般에게販賣한다는것이라고
◇그런장쾌한술을먹지말자는못하나?酒造所는反省할수업겟는가?速히解決하여라도는자도귀가만한槪勢가잇겟는냐?

地方人事

▲李晩熙氏(兵營渡民黨首)지난八日兵營三十里自宅에서……

香園艶史 (53)

崔獨鵑 作
安夕影 畫

아아 커주밧은 생명—고독과 비애를 한아름안고 눈물의바다를 허염치기위하야 좀은세계로부터 넓분세계에 어두운세상으로부터 밝은세상으로 울고발버둥치고나온조고만인간—소위나의 정식남편인 장일이와 결혼한지 넉달만에 세경덕소팀사의 그방으로부터 쏨아져거우일홉달만에나온 번선생과의 사랑의결정—그것은 그 얼마나 어미에게 애비에게 그리고모든 사람에게 환대밧은 인생이엿것든것이겟습니까

『자요것보십시요 얼마나엽봅님가 그야말로 옥가튼귀동자이구려 벌서세상에나와서 사람이되엇다고 손끗이 왓다갓다하면 무슨먹울것인줄알고 입을쪽쪽벌니는걸보셔요 엇지면 갓난애가이러케큼일가 바투져범삼찰일이나 처두고난애갓구려 것버하십시요』

간호부가 이처럼 금슬너울나는 그말을 나는피어지것게 반갑게 드를수가 잇슬가요? 나는내가 나아노흔 그어린것을 어렵버한다기보다도 미워한다기보다도 무서웟습니다

노란얼굴이 수업시 난얼골 원숭이처럼 주름살이잡힌이마—나는그것을 눈을크다랏게쓰고 드러다 보앗습니다 오분십분 이십분— 이러케계속하야 드려다보노라니 그얼골이 차차로크다래지드니 언으듯그것은 갓나흔 어린애가아니라 넓분이마 두둑한코를가진 장일이엿습니다 그부리부리한눈이 감작이커지며 불길이소사 오르는듯시벗낫습니다

『으악ㅅ』 나는소리를 질넛습니다 이소리를지른뒤에 엇더게 되엇는지 나는모릅니다

× × ×

어데인지 어느때인지 나는힘업시 눈을떳습니다 나는뜻밧게— 안이 뜻밧기라는것도 이상합니다— 나의엽헤게신 우리어머니를 보앗습니다 그러나그얼골은 몹시몽롱 하엿습니다

『아이그 어머니 어머니』

나는어린애처럼 울으지졋습니다

『오오정순아 나를알아보겟니? 에민줄을 알겟니?』

어머니는 무슨귀적이나 보는것처럼 신긔해하는것이 나는이상하엿습니다

『아니어머니두 내가어머니를 뭘모른우?』

나는분명히 이러케 말하고어머니의손을 붓잡앗습니다 몽롱하든어머니의 얼골은 좀더분명하여지는것가탯습니다

『아이그이런신통할데가 잇나 에두잇나 내딸이야 어어넉사……

……천히알수가 업섯습니다

『어머니여긔가어데요?』

『네가병원이지 어데야까만히 잇거라 내나가서 의사님불러다 리고드려올께』

어머니는 무엇이그처럼 깃분지 손을쌔리치다 싶히하고 어데로 칠칠치못한 태도로내가못살은 나는어머니가 나가는 식컴언문 나가는것이엿습니다

옵비롯하야 나의주위를 휘돌너보고새삼스럽게 놀나지 안흘수 업섯습니다 그리험지못한 마루방인데 두러온널쪽으로 벽을만들고문이라고는 지금 어머니가 나가든 철판같인듯한 식컴언것이하나 잇슬뿐이요 두어군데에잇는 들창이 남편창에는굵다란쇠창살이 잇섯습니다 원족이 감옥이아닌가하고 생각하엿습니다그런데 어머니는 이것을엇쐐병원이라고 할가? 나는 이러케궁금하기도 하엿습니다 그러나방안은 이상히 명랑하엿습니다나는그 리유를비로서 알앗습니다맨마루바닥에 와라노흔 침대우에 깔는것가튼 두렁드두러운집을너 어만든 폭신한 요우에 발녀누어서 바라보는 련정복판에마처 뭇십으는온실(溫室)을 련상케하는 스리가라쓰(曇硝)로 로들닌창으로는 아츰볕 인듯한 태양이 쏘앗캐드리우고잇고어데서인지 매암이소리가 그윽히들니여왓습니다

『대데여긔가 어듸일가? 차즘이어느뎨인고?』

나는다시금엽을누는듯하엿다 이윽고 스렙버를 끄으는 소리가 들니자지금어머니가 나가든 시컴언문이열니드니 어머니가 드러오고 그뒤를나여 의사인듯한 배의를 입은수염이 희끗한 남자가또그뒤에 간호부 복색을한 젊은녀자가 드러오는것 이엿습니다

『오오 그러면이것이 창맛병원인게로구나』

나는마음속으로중얼거리며그들을보앗습니다

의사는드러오는길로나의압흐로 와서안즈며나의손을만저보고눈가죽을뒤집어보고엇저구하드니

『머리가 압흐지 안흐냐』

못고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아주 좃거시요다 낫소요좃거시 좃거시』

『비비 그러고맙습니다의사님덕분에……』

의사와 어머니사이에 거둘거틀빗귀는 이런대화를 나는여원한 그와미를 알수가업섯습니다

사는 다리고들어온 간호부에게 『오늘은 쥐—냉……』하고……

豫審中의金漢童事件 大邱에서連累者發覺?
경북고등과에서단서를어더 警察猛烈히活動中

작년말경에 경성에서 톄포되어 방금 예심중에잇는 김한동(金漢童)이가 톄포되기전에 대구에 와서 무엇인지 책동을하고잇섯든것이 발각되어 그간경북경찰부고등과에서는 그련루자를 톄포하라고 무한고심하든중 작십일일조조에 그에관련한 새로운중대사건의 단서를어더복뎐(福田)고등과장은 최경부이하부하를소집하고 비밀히 지휘를하얏다하는데 그로인하야 경찰부의 활동은 맹렬히 시작되엇스며 그에대하야 복뎐과장은 전부터도 사하얏는데 아모관계는 업다고 말하나 왜중대한 사건의단서를 어든모양이더라(대구특뎐)

仁川海岸에 白晝大火
손해천오백원

지난십일오후한시경에인천항뎡(港町)해안에잇는 주안전매국(朱安專賣局)출장소의소유소금(鹽)에서불이나서 일시 대혼동을닐으키엇는데 그엽헤는 한업는바다물이 창일하것만은진화할도리가업섯고 사정업는 불길은다시그부근에산가티쌋노흔시내류뎡(柳町)삼십삼번디뎡원긔(龍元甚)의살거섬과시내복도조(福島組)의소유인살거섬으로 옴겨부터자못 큰화세를 닐우엇든바금번돌연히 소방조원의 출동으로동오후 두시반경에 진화하엿스나 는데 발화의 원인은 인부들의담배불로그리되엇것이아닌가의아중에잇다하며손해는대략됴사한바에 의하면 소금은약 백원미만의 손해이나 겨섬에는 권긔뎡씨의손해약륙백원과복도조의 약팔백원 총계일천오백원가량이라더라(인천)

金剛山爲하야 調査費二萬圓

조선의 금강산(金剛山)이 세계에서 일컷는 유명한명산이라함은세상이다아는사실인바 이제 총독부당국에서는세계뎍명산에상당하리만치내용의설비를완전히하고 내무국과 텰도국의합동으로 경비이만원을 들여위선실디됴사를하기로되엇다는데 그됴사가끗나서 설비까지 완전하게되는 날이온다면구라파각국으로부터도다수한 유람객이 련락부절하게구경을올모양이라더라

新興炭坑의大火 工場一棟이全燒
지난일일오후아홉시경에 損害額二萬圓可量

지난일일 오후아홉시경에 신흥동상면(新興東上面)장문조륙호(長門組六號炭坑)굴에서 돌연히불이닐어나사나운바람에불길이더욱맹렬하야순식간에공장이 전소되고 말앗는데 손해는약이만원가량이며 발화된원인은 뎐긔관계인듯 하다더라(동상)

故徐鎭文君 遺族餞送式
삼일횡빈에서

긔보한바와가티 모사건에 관련되야 일즉이횡빈시가하서(橫濱市加賀署)에 구금되엇다가거긔서죽은고서진문군(故徐鎭文君)의유골과 그유족인부인윤씨(尹氏)와딸 뎡자의귀송식을지난입월삼일오후 세시에 신내천현조선로동조합(神奈川縣朝鮮勞動組合)회관안에서륙십여명의남녀동지가 회합하야 거행하얏는데 사회자권일선(權一宣)군의개회사가시작되매일동은삼분간의 묵도가잇슨후 각처에서온남녀동지들의 눈물석긴 권송사로써맛치고뎡거장으로써날때최후의 고별로 부인윤씨는뎡자를안고 통곡하며 동지들은유골을둘러싸고 군이평시에 부르든××가를고창하야울음과노래 가온데 회관을떠나 동오후팔시 십칠분세삼창으로 급행렬차로 횡빈역을떠나 군의고향인 울산(蔚山)으로 향하얏다더라

花園町殺人犯 징역오년구형
言渡는來十六日

지난십이월일일오후여섯시경에시내화원뎡(市內花園町)에서취중(醉中)에 사홍서에 단도로사람을살해(殺害)한팔목화일(八目和一)(三二)은 그동안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형사부공판에회부되어 재작구일 오후한시반경에 동법원 데사호법뎡에서말광(末廣)재판장심리로데일회공판을 개뎡한바립회한 김(金)검사는 징역오년을 구형하얏는데 언도는 오는십륙일이라더라

仁川行金橫領犯 逮捕코저永宗島로
엇더한단서를어더가지고 仁川署繼續活動中

상업은행인천지뎜(商業銀行仁川支店)예금계에 근무하든김선근(金善根)의행금(行金)횡령사긔사건은 발생하든당시에도루누히 보도한바어니와 동범인을톄포하려고 인천경찰서에서는각디 경찰서로 수배하야수색을 늬리하는동시에 백방으로 활동을하엿스나 종시그종적을 알지못하고 로심초사로지내든중 지난십일에 엇더한단서를 어더가지고 동서소판(小坂)형사 부장과 박(朴)형사가 당일아츰에인천근처에잇는 영종도로급거히출장하엿는데 경찰서원의 말에의하면 그범인은 불원간톄포되리라더라

橫領消費額 六萬餘圓
취됴를바든 谷本支店長의答辯

별항보도한바 상업은행 인천지뎜의 횡령사긔사건이 발생한후 인천경찰서에서는 동은행 지뎜장대리곡본승태랑(谷本勝太郞)씨를 불러취됴한바 범인김선근(金善根)은대정십오년이월십오일에 월봉삼십이원과 사택료십오원인사십칠원에 권긔은행에 채용되어 예금계에서 근무하든중 처음에는성심으로 근무하여오든바 작년(昨年)이후로 지난십이월그범행사건이 발생하기까지에 그태도가 다소이상한면이 잇섯스나 그와가티 막대한금액을 사긔횡령은 전연알지못하고 잇다가 십이월십칠일에야 동은행모의 밀고로 비롯오 범행사실이잇는것을 짐작하고 그즉시에곡본지뎜장은 김선근에게 비밀리에서 그사실의 유무를물은바김선근은 태연히 말하기를 사실일만칠천원을 소비하엿스나그만한 금액은불일내로 미봉할도리가잇다고 하며 그금액을 소비한동긔는 그의숙부 김락주(金洛周)가미두에삼만원돈을집어너코회복할 뒤자본을 대여달라고간청함으로 범행의 사실인줄을 알면서도 전긔금으로수용하여 주엇다고 패패히말함으로 곡본지뎜장은 김선근의본가재산이 일이만원 내지 삼만원쯤은 무난히보상 할것으로생각하엿슴은 아니라 될수잇는대로세상에 탄로하자 안코비밀에부치어커리하는것이오히려 당연한일로 생각하고 그이튿날인십팔일에 장부를정리 하기로 하고경성본뎜에 그사실을 보고하엿든바 그이튿날 김선근은 교묘하게도 종적을감추엇다 하며그후 횡령소비한 금액을됴사한바총액륙만이천원으로인천미두취인소「가네태」(金太)「마루복」(丸福)두중매뎜을비롯하야금촌(今村)내해(內海)김인오(金仁悟)등중매뎜을통하야과미에착수하얏다 가거대한손해를당한것이발각되엇다더라

晉州科學研究會에 突然解散을命令
【幹部를檢擧、會員家宅搜索】 륙일에진주경찰서에서

지난륙일오후여덟시경에진주각사회운동자신년간담회석상(晉州各社會運動者新年懇談會席上)에서 강두석김상우(姜斗錫、金尙宇)량군이검속되엇다함은 긔보한바 그후 경찰당국에서는이문데를 의외의 방면으로몰리며 진주사회과학연구회(晉州社會科學硏究會) 간부신태민하진(申泰珉、河振)등을위시하야일반회원의 가택을 일일히수색하는동시에 연구(硏究)하든 서적(書籍)외다수의책자와문부(文簿)를압수하여갓다더라

新幹部六名을 召喚取調
결사의유무를 엄중히취됴중

진주사회과학연구회간부(晉州社會科學硏究會幹部)를위시하야일반회원(一般會員)의가택까지 수색하엿다 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그후 황정(荒井)경찰서장은 동회의간부륙명을 소환취됴한후 금번사회과학연구회는 형식(形式)으로는 신문지상에발표되며 공개뎍(公開的)인듯하나 장소가 일뎡(一定)치못하고 또회원권부가 불온한분자로 내용에는 결사의 정신이잇다고 인뎡할수박게업슴으로 곳해산(解散)하라고 명령하엿다는바 그후간부일동은 즉시이말을 일반회원에게 전달하엿다하며 이사건이전에 검속되엿든사회과학연구회간부 강두석、김상우(姜斗錫、金尙宇)량군은 동회의해산명령(解散命令)이나리자곳석방(釋放)되엇는데 가택수색으로인하야 압수된 책자와문부는상세히 됴사한후 각각넘자에게 반환식힌다더라(진주긔자단)

雪上足痕으로 窃盜를追跡逮捕
曉頭元町에三人窃盜團 범인세명이일시에잡혀

원적을텬안군(天安郡)에둔뎡운룡(鄭雲龍)(二八)지수룡(池壽龍)(一五)량명과마포(麻浦)에사는장뎜동(張點同)(一八)삼인은작십일오전세시반경에 룡산원뎡일뎡목(元町一丁目)오촌좌평(奧村佐平)의잡화뎜에들어가서「사쓰」류와일본옷감등가격으로이백오십원어치나 되는잡화류를절도하야가지고 도망하얏슴으로이급보를 들은룡산 경찰서에서는지체하지 아니하고 곳출동하야범인 수색에노력 하엿는바때마츰눈이 와서차차히 엇슴으로 눈우에 박인발자최를 따라서추격하야룡산 칭엽뎡 삼뎡목(靑葉町三丁目) 권긔뎡운룡(鄭雲龍) 고물상(古物商)에까지이르러발자옥이 업서젓슴으로 곳그집을수색하야 전긔삼인을 톄포하엿다더라

京釜線에서 老人一名轢死
사일귀미에서

지난사일오후 세시에 부산행급행렬차에귀미역(龜尾驛)을약이마일가량남기어둔디뎜에서무참히도로인이 차에치여서 즉사하엿슴으로소관주재소에서는 급보를접한 경부보이하 수명의 경관과사의사가현장에 급거출장 하야됴사한결과죽은노인의원적디는충청도이며나이는 륙십세 가량되여보이는상주이며 소지품은 현금이원삼십칠전과 헌옷가지라 하고증거로는 편지몃장이 잇슴뿐임으로됴사를 맛친후 즉시귀미면 면장 김승동 씨와 소원 김옥성 김교식량씨가 당일오후 구시까지 부근공동 묘디에매장 하엿는데 원인은권긔로인이 영미까지보행으로 와서 차비를보니자긔는텬안 까지갈러인데 귀현까지갓다가 로자가업서서 귀미에서텬안까지일원가량차임이 부족함으로김천까지더보행으로 가서차를탈예뎡으로가다가그만 그와가티털로에서약삼간가량이 탈어저서죽엇다더라(선산)

石家莊事件과 문천동맹결의

함남문천 청년동맹(文川靑年同盟)에서는 지난팔일에본보문천지국안에서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를개최하고 지난번에중국석가장(石家莊)에서 생긴 조선동포의 변사문데(同胞變死問題)에대하야 문천의온갓사회단톄와 련락을취한뒤에 조선신간회본부(新幹會本部)를통하야사실을됴사하야

一、中國國民政府와該縣責任者에嚴重抗議할일

二、朝鮮各團體에通牒을發送할일

三、農民運動을調査하야一般民衆에게報告할일

을결의하고 폐회하엿다는데 이에대하야 문천서에서는 그동맹의 박경(朴鏡)씨를 호출하야 동포변사문데와원산수력뎐긔회사(元山水力電氣會社)에대한건만은 총회에상정을 금지한다하면서 일반회원에게 발송하라든 통지서까지 압수하얏다더라(문천)

東海岸風浪으로 沿岸浸水五十餘戶
어부한명은간곳을몰른다 詳細被害는調査中

지난일일 밤중에 동해안울산군강동면 뎡자리(東海岸蔚山郡江東面亭子里)일대에는 돌연 폭풍이불어 놉히사오십척가량 되는큰파도(波濤)가이는동시에뎡박하엿든선박(船舶)이란마상태로되어 선부한명은 행방(行方)이불명되엿스며 침수가옥도 오십여호에달하는 참상을 연출하엿다는데 상세한사정은 방금됴사하는중이라더라

西湖津의 七兄弟패
행패가심하야 被害者續出

함흥군서호진(咸興西湖津)에서는무뢰자들이 작당하여 시내를횡행하면서 각영업가와 지나단니는사람들에게 무고히 폭행을한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들으면서호진에본적을둔현명섭(玄明燮) 최석풍(崔錫豐)최긔명(崔基明)최진연(崔鎭淵)리수진(李壽鎭)김명식(金明植)등닐곱사람이소위칠형뎨패라칭하고작당하야여러가지횡폭한행동으로 매일밤이면 시민이잠을못자게 떠들어 오던바지난십이월삼십일 밤에는 함흥읍에서온손님 수삼명이 지나가는것을무고히 생트집을 걸어무수란타하야 상처까지 내엿다하며 일전에도서호에서술영업 하는 최회건(崔會健)과김응텬(金應天)의집에가서술을공것먹고술갑달란다고가장을마부시며술과논잡부를 무수히 따리고 결국돈도아니주고 갓다고 그피해자들은고소까지 하겟다하며 일반주민들은 주재소에서 취톄도아니하여주고 시이불견 한다고비난이자심하다더라(평양)

高城殺人强盜事件 낫으로사람죽인
원산서함흥으로호송 不遠中에公判을開廷

긔보=강원도고성군오대면룡하리(江原道高城郡梧垈面龍下里)송림속에서낫으로사람을살해하고돈오십여원을 강탈한 최재원(崔在元)(二四)은살인강도죄로원산지텽송본(松本)검사에게취됴를바든후함흥디방법원에호송되여공판에 회부 되엿슴으로불일간데일회공판이동법원에서열리게되엿다더라

開城强盜犯 餘罪續續發覺
기생집에도들어갓섯다

개성군 송도면동본뎡(開城郡松都面東本町) 삼백이십삼번디합성정미소 방영식(合成精米所方永植)의집에 쇠사슬을지닌강도한명이 들어와서 현금과소절수등 일만원갓가운 돈을강탈도주한일이 잇서소관 개성서에서는그범인으로 고려뎡에 사는김종권(金鍾權)을 톄포 취됴중이라함은 작보한바 동서에서계속취됴한결과 그자는 지난십삼일밤에도 서본뎡(西本町)의 기생김해중월(金海中月)의집에니르러현금이십여원을 강탈도주 한것을비롯하야 여러가지 여죄가폭로되엇다는데 아마수일내로 검사국에넘기리라더라

金浦致死犯 징역삼년구형
言渡는十六日

김포군월곳면개곡리(金浦郡月串面開谷里) 리항하(李恒夏)(三九)는 지난십이월십구일 오전한시경동군고뎡리(同郡高亭里)에사는리룡하(李龍夏)라는자긔의친척집결혼식에갓다가손님중에림용대(林容大)란자가 란취(亂醉)하야 리덕상(李德商)이라는사람과 배소를지못한사실로 싸홈하는것을보고텁유배를넘어서슴히 오뎌가량되는곳에서떨어처 어린편귀에서 피가만히낫고 당일오후 넘시경에 도되어사망케하엿는바 이것이상해치사(傷害致死)라는죄명으로경성디방법원공판에회부되어 지난구일오전열시에 말광(末廣)재판장심리로데일회공판을 개뎡한바 립회한김(金)검사는징역삼년을구형하얏고언도는오는십륙일이라더라

迎日灣內漁場에 暴風으로損害莫大
아즉상세한통계는몰으나 損害總額數萬圓

경북영일만(慶北迎日灣)일대에서는 지난일일부터 동륙일까지 폭풍으로인하야 파도가 심하얏슴으로 칭어정치어장(鯖魚定置漁場)에 막대한손해가낫다는바 아즉상세한 통계는 알수업스나 수만원에달한다더라(포항)

男便과싸우고 집을나온女子
경찰서에서는 남편에게긔별

황해도신천군 동두면동향리(黃海道信川郡東頭面東鄕里) 김긔주(金基周)(二五)의처김세현(金世賢)(一八)은약이십일전에그남편과말다툼을 하고분김에 집을나와 이러저리 돌아다니다가 아모런집이나 불고렴치하고 차저드러간것이 평양시외 고평면구정리(古平面九井里) 팔십팔번디리종헌(李鍾軒)의 집이엇다 그런데 리종헌은 인정이불상하야그동안 몃츨을두류 하게하얏스나 그대로두어 둘수가업슴으로 지난구일에 그녀자를 다리고 평양경찰서 인사상담소로가서 처리방침을 상의하게되얏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녀자의 남편에게로 통지를하야 다려가게하도록하기로하고 그동안만은리종헌에게 가서잇스라고 하얏다더라

賭博犯으로 十餘名檢擧
의주서에서

의주군 가산면옥강경찰관주재소(義州郡加山面玉江警察官駐在所)에서는 가산면 옥강동에잇는 유력자라는김모(金某)등 십여명을 검거하야 방금도박죄로 엄중취됴중이라는데 사건의 내용을탐문한 바에의하면 지난십이월 삼십일밤에가산면 사무소 압헤잇는신익호(申益浩)의 집에서 골패를하다가 야순하는 경관에게검거되어 그와가티 취됴를밧는것이라더라(의주)

八歲兒가警察에 救助를嘆願
팔일평양에서

지난팔일오후 네시경에 평양경찰서인사상담소에는여덜살된어린사나이한명이당돌하게드러와 「나는서복남(徐福男)이라고하고 방금여덜살된아희인데부모도업고친척도업는불상한아희인즉좀구조를하야달라」고말을한일이잇섯다는데 어듸로부터 왓는지 본적이어듸인지 도모지 알수가업스나그말하는형편으로보아양덕군(陽德郡)으로부터온아희갓다하며경찰서에서는할수업시평양고아원에교섭하야수용하도록하야주엇다더라

水害豫防組合 徹夜進行
대검거개시로 방청자는흥분

긔부현증배촌(揖斐川)수해예방조합원회는 십일오전 십시로부터안팔군역소(安八郡役所)에서 개최되엿는데 조합원일동은 우리들은 직무를 분담하기위하야군역소에 드러오는 경관들과 향한일은 업섯고또 금번의폭행은 경관측에서 폭행을 한것이오우리들 촌민은결코 폭행한긔억이업다고 주장하엿스며 동일정오에방텽자 만원으로인하야 회장을본원사별원(本願寺別院)에옴기고

一、현당국에 진정을 할때에는 정숙히할사

二、신문의 오보는차차 정정케할사

등을협의하고 십일일 오전십시에현청압흐로 참집하기로 결의하엿는데 마츰명삼촌의 검거가시작되얏슴으로 방청자는 비상히흥분하야 밤을새여 서라도 회의를계속하겟다하더라

林巨正傳 (45)
碧初 洪命憙 作 / 夕影 安碩柱 画

八、상경

봉단의일행이 서울에 도착한뒤 달포동안 리승지집안팍 하인들 사이에는 봉단의 근본을추측하는 뒤ㅅ공론이 적지 아니하얏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인령감을쇠리어서 것흐로대접하나 것대접대신에 뒤ㅅ공론이 말아니로심하얏다

『정승이에 감ㅅ족을부친딸이라니 편생시골백정의딸이야』

『남은못쇠락시니라니 보병것이나마 쳐도가되엇서야지』

『그삼촌명색을보지 시골백정놈주제에 족하딸자세하고 점잔쌔는꼴이라니 눈이시어못보겟서』

『백정의딸년더러 마님이라고불으자니 작년에먹은 옴베송편이되살어올라올디경이야도망이라도해야지 이집에서못살어』

달포지난뒤에는뒤ㅅ공론이조금변하얏다

『감ㅅ족을뗴고 머리를쪽씨니까 입부장스럽든데 그러치만아무래도 시골백정의 딸이라태가나지아니해』

『동이쌈은 회장저고리들님은것이 대단히 거북살스러워보이든군 긴치마를 느리니까마당발이가려저서 훗하나가 뎝히겟지』

『말수가적은것이 잔소리는심[illegible] 차차지내보면 알겟지만 백정의딸로누사람이케벗이야』

달포가 갓가워진뒤에는 뒤ㅅ공론이 처음과 아주딴판으로변하얏다

『입누고 맘씨조코 시골사투리외에는 흠잡을것은마님이 야어듸가 백정의딸갓기나해』

『그삼촌도 여간유식하지아니한모양이야 함흥서는 백정학자라고유명하더라지』

뒤ㅅ공론을밧고 지내는 동안에 봉단이는 남몰으게애도만히태우고 속도만히 상하얏다 주제는 리승지가 따로밧하나치워준까닭에 주는옷닙고 주는밥먹고 가만히방에들어안저서 심심하면 책자나뗘들어 보고지낼뿐이니까 별로견듸기 어려운일이업섯지만 봉단이는 그러치못할것이 텬생은아무리 총명하야도 병신구실을 아니하지못할처디다 침모 차집이하여러사람에게들려지내며 서투른것을 익히고몰으는것을 배우노라니 견듸기어려운일을만히당할것이뎡한일이다 리승지가 번나와서내외단둘이 마조대하야 안게되는밤켜틔이외에는 일시라도 맘을노코지내지못하얏다 그러나애를태우고 속을상하는대신에 문견이나날히늘어갓다 원악이 소명한재질이라 남이하는일을 한두번눈녁여보면못할것이업기도하얏지만 관듸침모가 나이지긋하야아는것이만코 더욱이 사람이조흔까닭에 바누질도 배우고 언문도배우고 서울풍속도배우고 또량반의집의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하는범절까지도만히 배웟고 차집은 청미잇는사람인까닭에 비위들 마처가며음식멘드는법을 아모쪼록 꼼고로배웟다 그리하야 한달이채못되어서 바누질이나 또는음식만드는것이나 거의만힐것이 업시되엇다 번상을차릴때

『저명란젓시에 옹파를젓드려놋는것이조치안소?』

차집보고말하고 옷을질때

『이저고리깃은 모를좀더동굴리는것이 보기조치안켓소?』

침모보고말을하야도 침모나차집이 고개를 외치지아니할만큼되엇다 부리는사람에게대한 말은 아희종이외에는 젓동자치게까지라도『해라』를 쓰지안코『하오』를쓰든것을 리승지가그리말라고말하야 아랫두리에도는 하인에게 간혹『해라』도 쓰지마는대개는 말끗이업는 반말을쓰고 손피는할미가튼 늙은이와 관듸침모나 차집가튼 대접할사람에게는압두이『하오』를쓰든것이다 하루는리승지가 감긔긔운이잇서공고(公故)에탈하고 집에누엇는데 아무리하야도 사랑은 부산하야 성가시다고안방모ㅅ방에 이부자리를펴고 누어서부인이안밧에나가잇슬사이가업시 마님것주라고 불러들이엇[illegible] 내외만잇슬때에 누은 리승지가 안진부인의배를가르치며

『밥을 하두몃기나먹기에배가커러케불은고』

하고웃다가그치고서손가락을 꼽아보며

『남달로는 배가몰으지아니한셈이요 레사밥좀만히 먹은사람의배만박게 아니되오그려』

하고 치마미트로 배를만저보랴고하니부인은몸을피하며

『리승지령감이 안해대접을김서방가티하셔서야되겟습니까』

하고눈으로 웃는데 리승지는가만히

『리승지도 봉단이생각은노치못한다든데』

하고 소리내어웃엇다 그날내외가조용히 이야기하는중에 부인이섯달금음이멀지아니하얏다고설쇠일 준비를걱정 하다가리승지가

『우리살림으로 설쇠기가처음이니 무엇이든지하고십흔 대로하시요』

하는말에

『뒤에 딴말슴은못하십니다』

하고뒤들다커두엇다몃칠지난뒤에리승지부인이차집을다리고집안사람들에게세찬줄것을의론하는데 모든것을 피하도록후하게뎡하야주인령감에게말하니령감이 처음에는 넘우과하다고말하다가『딴말슴아니하신다더니』…한마듸에 웃고부인의 말을조차다 그뒤로는하아들사이에백정을들추는 뒤ㅅ 공론이 굿치엇다

종명자

▲구일밤에시내에는 또큰눈이나려서▲산이나들이나길이나모든것이새뜻한은세계로변하얏다 ▲강설(降雪)은풍년의서조(瑞兆)이라하니▲한재(旱災) 수재(水災)가 겹첫든재난년괴는 딴판으로 새해에는 큰풍년이들 권조이라할까?

天氣豫報

比較	十一日午正	二、七
曇小雪後晴		
遠度 一	十日最低	六、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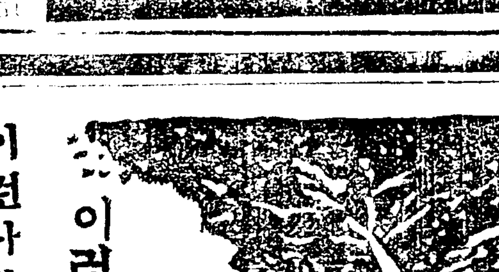
긔침 천식

漫性도急性도 治療는龍角散

感氣로부터 기침으로부터肺炎이되지안케하는要愼에第一조타

기침천식의氣味가보이면다음에는肺炎、肋膜炎肺結核等으로變症하기쉽습니다 이危險을새앗히막는것은 鎭咳祛痰 呼吸器病專門藥龍角散의特長으로기침、천식에걸니면곳本藥을服用하사完全히治療케하십시요

RIUKAKUSAN.
The Exelent Medicine for the Cough and the Asth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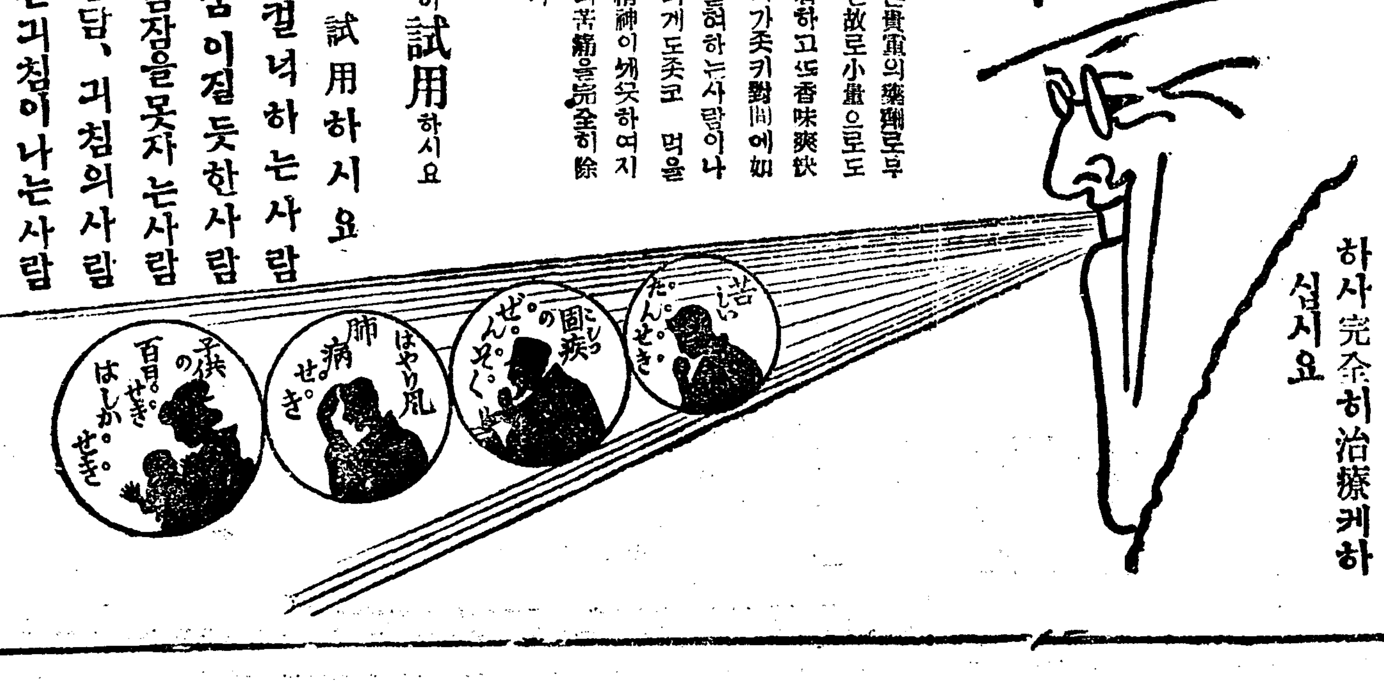
龍角散은貴重의藥劑로부터되엿는故로小量으로도奏効顯著하고또香味爽快하야먹기가조키對間에如何히藥실혀하는사람이나아희들의게도조코 먹을때마다精神이쌔긋하여지며咽喉의苦痛을完全히除去합니다

이런사람은必히試用하시요

이런사람은반듯히試用하시요

- ●痰咳로恒常걸녀걸녀하는사람
- ●천식으로언제든지숨이질듯한사람
- ●넘우긔침이甚하야밤잠을못자는사람
- ●流行感冒로부터나는담、긔침의사람
- ●肺病으로恒常힘업는긔침이나는사람
- ●담에서냄새가나며쌔로血混이석겨나오는사람
- ●音聲이쉬고또는咽喉가압픈사람
- ●百日咳또는痲疹咳의小兒

其他呼吸器疾患의기침은如何한惡性이라도大略一二週間繼續服用하면効果顯著합니다



登錄商標 龍角散 (りうかくさん)

定價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本舖 東京市神田區豊島町角 藥劑師 藤井得三郞
振替口座東京九一番 電話浪花一九〇二、一八〇五番

△全國各藥店에잇소▽

歐米經濟十年史 (七)

洪性夏

二、賠償問題의續

「今日合衆國에서보게되는 出處不分明한巨資本은 昨日外지는資本化한어련에의피로써英吉利의存在하든것이다」(高島氏譯資本論第七五〇頁) 이말은米의債務者的經濟狀態를指摘한말이다 그러나이말은現在의米國에는 適用이되지못할말이다그러고 맑쓰가또「亞米利加合衆國을經濟的으로보면 依然히歐羅巴의植民地」이다라고한말과亦是天地가 뒤바뀐感이잇다 即

今日의 歐羅巴는米國의經濟的植民地가되엿다할 것이다 即現在의米國은歐羅巴諸國의米國이라는것보다도工業國의米國이오 債務者로의米國이아니오債權者로의米國이다 그리고經濟的으로歐羅巴의植民地가아니오 經濟的으로歐羅巴의母國이다 換言하면世界大戰에依하야 米國은實力上으로歐羅巴를支配하게된것이다 佛蘭西의兵力도米國의金力下에屈服하고 英國의金力도米國의金力에「아유」하게되엿다이

려함으로 一時는弱外交든라는 衛議까지생것든것이다 그런데이가더 큰勢力을가진 米國의賠償金에關한 從來態度는 不干涉主義를取하면서 오즉戰債支拂이 斷續히되기만을 期待하엿든것이다 그러나 이賠償問題와 戰債問題에는 密接한關係가잇섯다 그는戰債의債務國인 英佛伊白等諸國 더욱이나佛蘭西는賠償金의圓滑한支拂을受하지안코는到底히戰債를支拂할力量과誠意가업섯슴으로 賠

償支拂이圓滑을 失하게된後로되어 米國은從來態度를變改하지안흘수업섯다 單純한傍觀的[illegible]이아니다 米國의關係인歐羅巴의經濟的破壞는米國의繁榮을害할뿐아니라 一步를進하야는經濟上一大危機를招來하게될으로 米國의利益을斷隔하기爲하야 從來의對賠償金態度를變改하게되엿다

佛蘭西가取한두─얼占領의手段에依하야賠償問題를解決하고自國의工業帝國主義의安全을圖謀하려든뭇은國粹主義反動政策은 오히려共產主義의怪物에對한恐怖 佛蘭西의帝國主義의慘敗 世界資本主義의衰退、歐羅巴市場의破壞를 招致하엿슬뿐이다 또이波紋은米國의 農業經濟에까지影響을及하게하엿다

新銀行令에依하야 新設될貯蓄銀行

三月中에는實施될듯

朝鮮貯蓄銀行令에依한貯蓄銀行新設은大體殖銀貯蓄課를分離하야獨立케할方針으로目下殖銀高久理事가渡東하야有賀頭取와協議中인데殖銀은新設銀行에對하야相當한出資를하는바一般으로도株式公募를行할것이다總督府에서도大體異議가업는模樣임으로느커도三月中에는實施될模樣이라더라

外米制限 緩和希望

◇工業界方面打擊

（東京電）日本의米穀需給及米價調節으로政府는昨年三月勅令으로써外米輸入制限을實施한以來前後二回에亘하야輸入制限令의期間延長을行하야本年十二月末日外지繼續케된結果、最近非常히外米輸入數量이激減하야昭和三年度에는外米輸入數量이僅히百七十五萬石에不過하고前年에比하야二百四十萬石의減少이다制限에依한不足量은主로臺灣米로써補充한바從來外米消費者는臺灣米에滿足치안코工業方面에서도外米를要求하는者가多하야最近農林省에對하야外米輸入制限의緩和를要求한者가增加되고長期에亘한輸入制限은各方面相當히打擊을與하얏슴으로不遠農林省에서는對策을講하라고外米需要數量、臺灣米移入消費等을詳細調査하기로하얏다더라

十二月中 對中貿易概況

出超一千二十四萬二千圓

（東京電）大藏省發表＝昨年十二月中對中貿易額은左와如하다(單位千圓)

輸出	三四、五七四
輸入	二四、三三一
計	五八、九〇五
出超	一〇、二四二

또一月以降出超額累計는一億五千五百十八萬五千圓으로前年同期보다出超額은百八十八萬一千圓의增加이더라

鹽專賣廢止說

◇…中村代議士의主張

（東京電）民政黨의政策細目協定委員會에서中村繼男代議士는

一、賠償번移輸入鹽이잇슴에도不拘하고國民은高價의日本鹽을消費한다

一、專賣益金은全無하다

라는理由로부터鹽專賣를廢止하고鹽의價格引下를圖謀할것이라고主張하엿스나다시研究키로決하엿더라

殖產借替債券

◇一千萬圓發行

（東京電）朝鮮殖產銀行은四十八回債券을借替코자左記條件으로一千萬圓을發行하기로되엿더라

一、發行總額 一千萬圓
一、利率 五分五厘
一、價格 九十七圓五十錢
一、期限 二個年据置後十個年間에每半期二十萬圓以上抽籤償還
一、申込 一月廿一日부터廿五日外지
一、拂込 二月十五日
一、引受 山一 野村 藤本 小池 早川

日本米作 實收高

二回와大差無 ◇…五千九百萬石?

（東京電）昭和三年米穀實收高는目下農林省에서全國各地方廳으로의報告를徵하고잇는바本月二十日此를終了하야計數整理를行한後二十五、六日頃農林省으로부터發表되리라는바去十一月十二日에發表한第二回收穫豫想高五千九百七十萬石은一割豫

期米

仁川期米 十一日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illegible]	─	─
中限	[illegible]	─	─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一四高

前場反高

昨後場阪地二十八圓九十八錢止와共히二十五圓八十九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二十九圓十五錢인十七丁突高를據하고二十五圓九十六錢인七丁高로場을始한後阪地四節十六錢의一丁小高와相俟하야〇九錢外지續騰하더니阪地의十一錢外지反落을受하고依然頭重의感을呈하야結局二十六圓三番同事의保合으로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十四丁이며阪仁鞘는三百十二丁이더라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마바라狼狽와 大手의持久戰

新春劈頭에各地에殘餘丁의互落을告하야共히「마바라」筋의投物이거의一巡한觀이잇스며當아外相場도一旦狀態를呈하야底迷의保勢를帶하자「마바라」는反히賣物을試하는米豆이든바今朝阪地의突然九圓十五錢의高報를入하야當地는六圓〇錢로突返함을보아「마바라」筋은而度狼狽에陷하는模樣이다그러나大手筋은兩方共히儼然不動하야持久戰을繼續하는바硬派는三月限은新米建의쏘홈인만큼凶作의根本的高價를豫想할것을預期하고最後一刻外지抗戰할計劃이며軟派는本年는古米의減配으로春間의新底入을演出할이라하야또한遜巴이無히策戰不怠한다고云云果然前途大勢何如?

米豆餘話

▲今朝相場은阪仁共히圓臺를突破한一段高價를演出하엿다그原因은株式高? 一時的反動? ▲그러나戾價에는賣物이依然集注하는貌樣이야更히頭重하아짐을보면! ▲그런데大手筋은兩方을不問하고서로抗議不怠하야少毫도 遜色이無하고「마바리」筋만이리저리狼狽를當하는군▲古米의事情은强氣筋을應援하고新米의그根本的事情은弱氣筋을誘導하니만치新舊派의派爭과如할모양이야▲上短下長하든當地取組는昨今에入하야上下同一하게되엇을可知▲强氣側의宣傳인지는알수업스나漸次發表될實收高五千九百萬石說이流行된다如何間前例로보아減收될지도亦未知

底迷裡에 値頭買物盛行

百餘丁의慘落을告한後相場은老境에入한感이有하야底迷不振하든中何等의硬材도無히値頭帳의買物이旺盛하야畢竟四十丁內外의反高를示하고말엇다然而此邊에서又復續騰을告할지買察의人氣로보아서는又一段高價를見하기도容易할듯하나그러나古米實現의事情으로보면賣賛成을하지안흘수업는狀態이고新米의그根本自體로보아서는結局破天荒의大勢를演出하고말것임으로無識히賣叫에만熱中할수도업다實로如斯한一軟一硬의材料가潛在하여잇슴으로兩方의信賴가益益深刻되어各自의主張을세우며從하야압흐로決戰도時期漠然의觀이잇다고云云

後場續騰

後場은二十六圓丁으로初付한後二節〇九錢이엇다가〇一錢으로下押後結局〇三錢으로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九丁이더라

一節	[illegible]	─	[illegible]
二節	─	─	[illegible]
三節	─	[illegible]	[illegible]
四節	─	─	[illegible]
五節	─	[illegible]	[illegible]
六節	─	─	[illegible]
七節	─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前場		後場	
當	[illegible]	當	[illegible]
寄中	[illegible]	止中	[illegible]
一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各地期米

大阪氣配 二十九圓二十六錢

寄中當	[illegible]	[illegible]	止中當	[illegible]	[illegible]
一節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前場	後場
東京	[illegible]	[illegible]
兵庫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桑名	[illegible]	[illegible]

各限俵合 前場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常限	中限	先限
帳入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調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來高	─	─	─

仁川現物市場

(正)(上)玄米三等	二五、九五
同 四等	二五、四五
無檢查米	二三、〇〇
一等精白米	二七、三〇
在來正租	七五
改良正租	一七、六〇
龍山大豆	一七、六〇
長湍大豆	一七、三〇
金泉大豆	一六、四〇
海州大豆	一六、四〇
天安大豆	一六、四〇

合計 三五九〇〇石
累計 三七〇〇八〇〇石

大豆

賣買不成

三期共히賣買不成으로亦閉散히場을止하엿다

株式

京取市場 十一日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京取	─	─	─	[illegible]
鍾新	[illegible]	─	─	─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場反撥

大新 一三〇高 東新 二〇〇高

利喰煎物出現 東新筆頭昻進

今朝前場은大阪高에作하야當所亦東新百五十四圓丁寄後五圓六十錢外지漸騰하야大引하고大新亦八十三圓七十錢으로寄付後四圓丁外지昻進되어大引하고鍾新京取는無商內이더라

前場諸株步調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安定圈內로?

相場은日中交涉未定金解禁未了等에威脅되어一大瓦落을生한後저우四五圓의反戾가잇슨後다시新東이百五十五圓臺로今朝에反踏하얏는바此를連斷的으로만여反騰모看做하기쉬운것가트나然이나如此히新東이反足을取할은採算株가金利低金融緩漫等을背景으로思惑한에觀測된달이라고보겟고아죽도所謂政治季節인만흠政治界를中心으로하는新東株는

政界風雲不牙

인此際에本立直으로轉換하기는實로至難한일이다即新東百五十圓臺라는것은初陷恐慌當時에도엄든것으로實하라는氣運이勘할것가트나然이나아죽도高價取組가依然買方의勢力圈中에包含되어잇슴과또는受渡에對한掛念이一掃되지안흔此際에

新規買進極難

의掛念이업지아니하나十五日로써當限이滿할것임으로中旬以內에는容易히高相場을期하기難하며또여간큰材料가잇기前에는上述과如히四圓環境이不利한此時에新規買는危險한일이다그렁으로東新은百五十五圓內外를中心으로左右往來되며그저保合圈內에陷한態로安定圈中에서小側하다가當限落後事情과政界風雲安息如何로新局面을取할것갓더라

後場堅調

京取 一〇高 東新 三〇低
大新 四〇高

戾價買氣不衰 頭重堅調推進

後場亦人氣强하야買物이잇스나高價買警戒裡에東新百五十六圓二十錢이엇스나五圓八十錢으로다시三十錢外지押下大引하고大新은八十四圓四十錢寄後五十錢이더니大引不成이고鍾新은百二十六圓三十錢大引一本이오京取는二十二圓三十錢步一本이더라

後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鍾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大阪短期株式

	前寄	大引	後寄	大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長期合計 累計
▲短期合計 累計 五三三二〇 九七

出來高

取調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大引	算定	日步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日分）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illegible]
▲前場鍾新 [illegible]
▲前場日產 [illegible]
▲前場東新 [illegible]
▲後場大新 [illegible]
▲後場鍾新 [illegible]
▲後場日產 [illegible]
▲後場東新 [illegible]

大阪長期株式

株名	前寄	大引	後場	大引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illegible]	─	[illegible]	─

東京現株

東株	[illegible]	同新	[illegible]
鮮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綜緯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同新	[illegible]
富士紡	[illegible]	日石	[illegible]
延取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準備高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日本金利

	東京	大阪
無條件	[illegible]	─
翌日拂	[illegible]	─
普通物	[illegible]	─
月越	─	─

對外爲替（辟銀建値）

倫敦	一志十片十六分九
紐育	四五弗八分五
上海	七一兩八分五

海外經濟

倫敦銀塊	二六片十六分七
英米爲替	四弗八分仙八分一
米棉	不變
印棉	十錢高
스지ー부	一六四弗
아나곤다株	一一〇弗
紐育銀塊	五七仙二分一
對米爲替	四五弗八分五

綿絲

大阪三品

	前付	前止	後付	後止
一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

	前場	後場
當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延取引

群山 賣買高一萬五十六百石

	寄付	前止	高値	安値
〇ヤ三等	[illegible]	[illegible]	四等	[illegible]
ロチ三等	[illegible]	[illegible]	四等	[illegible]
一中	─	─	[illegible]	[illegible]
一末	─	─	[illegible]	[illegible]

大邱 賣買高一萬二十四百石

	寄付	前止	高値	安値
穀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神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中	─	─	[illegible]	[illegible]
一末	─	─	[illegible]	[illegible]
二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賣買高 一千六百石

	寄付	前止	高値	安値
穀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神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布

太極星	[illegible]	三星	[illegible]
不老草	[illegible]	山人蔘	[illegible]
三神山	[illegible]	鷄龍	[illegible]
三A	[illegible]	人蔘	[illegible]
大A	[illegible]	金剛山	[illegible]
長鼓	[illegible]	鐵管	[illegible]
栗錢	[illegible]	鐵鍋	[illegible]
雙口	[illegible]	花	[illegible]

▲綿絲

扇面(十六手)	[illegible]	雙女	[illegible]
張犬(十二手)	[illegible]	世樂鳥	[illegible]

▲陸金布

金	[illegible]	觀李圖	[illegible]

▲晒木棉

竹	[illegible]	公 棉	[illegible]

每反에對한 平均收穫

大正十二年부터昭和二年外지五個年間反當收穫에對하야殖產局에서調査한바에依하면

	收穫高	平均價格
米	九、三二	二七、三五
大麥	八、四六	八、一七
小麥	五、五二	八、一一
大豆	五、五一	八、一九
粟	六、三四	七、二三
棉	七二斤	一四、三三
繭	六斗七一	三九、九九

으로蠶繭이第一有利하다더라

穩城面西興洞四五 許丁默
穩城郡穩城面西興洞四五 朴大順
咸北穩城 穩城商會
穩城金融組合 福田東二
穩城郵便局職員一同
咸北穩城 綿布雜貨米穀 李圭璜商店
穩城 朴青松商店
穩城 穩興菓子店 主 丁興燮
咸北穩城 田文玉商店
咸北穩城邑 義信商會 方貞孫
咸北穩城 崔汝彥商店
申泰鎭
穩城警察署長 諺摩富士松
穩城邑 穩城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咸北穩城西興洞 錦海樓